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아주대학교

본 조사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이주민 집단들(즉,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새터민 및 조손족)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내집단에 대한 태도와 비교해 얼마나 부정적이며, 또한 이러한 태도가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관련 신념 및 집단간 접촉 정도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적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한국인 1800명(성인 1000명, 중고등학생 800명)을 다단계층화 표집방법을 통해 표집하고 개별 인터뷰 방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한국인들은 강한 내집단 편애 혹은 상대적 외집단 비하 태도를 나타냈는데, 대상 집단에 따라 다른 태도가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성인에 비해 더욱 부정적이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사회정체 이론이 제안하는 대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더 높았는데, 이러한 효과는 정체성위협이 높아질수록 더 강해졌다. 또한 접촉 수와 달리 접촉 빈도만이 편견 감소를 예측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접촉과 신념간의 상호작용이 편견적 태도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접촉 빈도와 동화주의 신념이 편견에 미치는 영향 과정은 각각 집단간 불안이나 위협감(이득, 정체성)에 의해 매개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론적 의미와 현실적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이주민에 대한 태도, 사회정체성,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 동화주의 이데올로기, 접촉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다수 집단(majority group)과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은 갈등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사회의 통합과 구성원들의 정체성, 자부심 및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심리 과정과 역동을 나타낸다. 다수(즉, 주류) 집단은 많은 경우 기존의 사회 구성과

체제를 정당화하는 심리를 가지고 비주류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나타내어 사회 갈등을 야기한다. 한편 이러한 편견의 대상이 되는 사회의 소수(즉, 비주류) 집단은 자신들이 단지 어느 범주 혹은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만으로 그 사회에서 인간적 모욕과 무시 대상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존심 저하, 인간관계에서의 회피나 배제, 그리고 채용 등의 불이

* 본 연구는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9-B-00088).

† 교신저자: 김혜숙(442-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사회대 심라학과. hsk@ajou.ac.kr

익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따라서 많은 경우 정체성의 저하나 부인 등의 문제를 겪게 된다(Jost & Banaji, 1994; Major & O'Brien, 2005; Steele & Aronson, 1995; Steele, Spencer & Aronson, 2002; Tajfel, 1982; Tajfel & Turner, 1979). 이와 같이 한 사회의 다수 집단¹⁾과 소수 집단은 서로 다른 심리 역동과 과정을 나타내며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사회의 갈등과 통합, 그리고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사회도 외국인 110만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2009년 행정안전부 조사에 의하면, 2009년 국내거주 외국인은 110만이 넘었고 이는 2008년 대비해서 24%가 증가한 것으로, 점점 증가일로에 있다. 이러한 다인종·다문화 시대를 맞아 외국 이주민들의 적응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 외국인의 다수가 외국인 근로자(2009년, 65.2%)와 결혼이민여성(14.3%)이고 이들은 한국 사회에의 적응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련 연구들이 보고하고 있다(김이선, 김민정, 한건수, 2006;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2007; 박주희, 정진경, 2007;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양애경, 이선주, 최훈석, 김선화, 정혁, 2007; 홍달아기, 채우희, 2007;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 2007). 예를 들어, 김이선 등(2006, 2007)은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인터뷰 연구 결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언어문제·경제문제 등이 심각한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가 가족구조, 젠더구조 등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과 갈등의 문제, 그리고 한국인들의 편견으로 인한 수용성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상 2009년 외국인 35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법무부)에 의하면 외국인의 2/3가 한국 사회는 외국인에 차별적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편견이나 차별을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보고하고 있다(매일경제신문, 2010). 따라서 이주민들의 적응의 문제는 이주민들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한국인들의 수용

성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이선 등(2007)은 이를 위해 '다문화 시민' 양성을 위한 공공 교육 프로그램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제까지 이주민에 대한 대부분의 관련 연구들은 국적문제나 폭력 등의 인권의 문제나 경제적 문제 등을 주로 다루어 왔지만(설동훈, 1992, 1998) 최근 들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 갈등의 문제(김이선 등, 2006, 2007; 정진경, 양계민, 2004), 그리고 새터민의 문화 갈등에 대한 문제 등, 문화 갈등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고찰한 연구(조정아, 임순희, 정진경, 2006)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들 후자의 연구들은 우리 사회의 소수 집단(minority)으로서의 이주민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가족, 젠더에 관한 문화 인식의 차이로 인한 결혼생활의 갈등 문제, 지역사회 갈등 및 직장생활 갈등의 문제를 다루는 등, 이들이 일상생활의 주요 장면에서 겪는 보다 생생하고 세부적인 측면들을 다루어 이들의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외국인 이주민들이 겪는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이제까지 단일 인종으로 이루어져 왔던 한국 사회가 다문화·다인종·다양성의 사회로 변화되어감에도 한국인들은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양성이나 차이에 대한 인정보다는 기존의 단일 민족 의식이나 단일화, 동조를 바람직하게 여기는 의식과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인은 타인종에 대한 편견적 태도나 비하적 태도를 견지하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한 국제적 문제도 야기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 이주민의 문제는 소수 집단(minority)으로서의 이주민의 적응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수 집단(majority)인 한국인의 적응의 문제이기도하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여러 인종 집단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다수 집단인 한국인이 나타내는 부적응은 타인종이나 집단에 대한 배타·배제의 심리와 편견으로 인한 갈등 조장의 문제이며, 한편 소수 집단인 이주민이 가지는 적응의 문제는 문화가 달라짐에 따라 문화 적응의 혼란으로 인한 정체성의 약화나 자존감의 저하의 문제, 그리고 문화적 변화에서 오는 부부관계 등의 인간관계

1) 여기서는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을 그 구성원의 수에 의해서보다는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권력과 지위에 의해서 정의한다.

의 문제, 노동과 여가생활 변화 및 고유문화 향유의 부족 등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삶의 질의 저하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성·다인종의 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룩하고 집단 구성원들의 삶의 질과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이 나타내 보이는 서로 다른 심리 과정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 연구에서는 특히 주류집단인 한국 사람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다문화시대에 이들이 나타내는 편견적 태도, 정체성, 다문화관련 신념 및 이주민과의 접촉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 변인들의 상호 영향과 그에 개입되어 있는 심리 기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다문화 시대에 한국 사람들은 사회의 주류 집단으로서 소수 집단인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 동화주의적 사고방식 및 한국인으로서 폐쇄적 집단정체성을 가져 사회 갈등과 이주민과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우리 문화는 집단주의적인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self)의 문화로서 사람들이 집단 범주화에 익숙하며 집단 범주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동남아외국인이나 흑인 등의 약자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보다 강할 수 있다 (노경란, 방희정, 2008). 또한 박수미, 정기선, 김혜숙, 박건 (2004)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차별의 심각성이 장애인, 학력이나 학벌의 순으로 가장 심각하며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그 다음으로 심각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지적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사회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간적 모욕과 무시'이고 그 다음이 '채용/해고 상 불이익', '결혼/친구관계 회피' 순이어서 우리 사회 소수 집단이 겪는 차별의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일상생활에서 다수 집단이 가하는 인간적 모욕과 무시, 깔봄과 같은 사회적 배제/무시/비하임을 보여 주어, 한국 사람들이 나타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인식이 소수 집단의 적응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지적해 주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편

견적 태도와 수용성에 대한 연구는 일부 편견적 태도와 다문화의식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실태 분석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 보다 세밀한 심리학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황정미 등 (2007)의 연구는 한국 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태도 연구의 시발점이 되는 연구로, 전국적 조사를 통해 한국인(20세 이상 성인)이 외국인 이주자 집단(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새터민 및 몽골인)에 대해 느끼는 사회적 거리감이 인구학적 변인별로 다른 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인이 가지는 국민정체성, 문화다양성에 대한 태도 및 종족적 배제주의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은 미국인에 대해 사회적 거리감이 제일 작았으며(즉, 보다 친밀하게 느낌) 그 다음 새터민, 조선족의 순이었는데, 응답자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연령의 효과(즉, 젊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아짐)는 주로 미국인이나 일본인 대상에 대해서만 나타났다. 또한 이주민으로 인한 집합적 위협(즉, 이득위협) 지각이 높을수록 그리고 단일민족의식이 강할수록 종족배제의식(즉, 문화다양성에 대한 저항, 이주자에 대한 시민권제한 등)이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한편 오계택, 이정환과 이규용(2007)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가지는 이주 외국인(미국인, 일본인, 조선족, 새터민, 동남아시아인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조사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감과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일한 시간과의 상관관을 분석하였는데, 별다른 유의미한 상관관을 얻지 못하여 접촉기간이 편견 감소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김이선 등 (2007)에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은 일반 한국인들보다 오히려 종족적 배제주의가 높았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이주민들과 보다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한편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촉의 효과가 접촉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는데,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거나 혹은 같은 부

서나 작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 등 보다 친밀한 접촉을 하는 것은 보다 낮은 종족적 배제주의와 상관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양계민(2009)은 우리나라 청소년(초, 중, 고등학생들)들이 이주민(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자녀, 새터민 및 조선족)에 대해 가지는 인지, 정서 및 사회적거리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그동안 부족하였던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지나 정서가 더 긍정적이었지만, 한편 새터민이나 조선족에 대해서는 덜 긍정적인 인지나 감정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한민족정체성, 현실적 갈등인식 및 권위주의적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현실적 갈등인식이 가장 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예언하였고 보고하였다. 이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이어서 양계민(2010)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우리나라 성인(30세 이상)이 가지는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이주민에 의한 현실갈등이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주관적 안녕감이 낮을수록 긍정적 정서가 낮아졌는데, 현실적 갈등 인식이 낮을 때는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양계민은 청소년과 성인의 자료를 직접 비교하지 않아 성인에 비교한 청소년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노경란, 방희정(2008, 2009)은 외국인에 대한 명시적, 암묵적 태도를 내집단에 대한 태도와 비교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나 강한 내집단 편애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내집단편애는 대상(흑인, 백인, 동남아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기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다수 집단인 한국인이 소수 집단인 이주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를 좀 더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내집단(즉, 한국사람)에 대한 태도와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내집단 편애 혹은

외집단 편견을 조사하여, 이제까지 이주외국인에 대한 태도만을 조사했던 선행 연구들과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선행 연구들과 달리, 이주민에 대한 성인들의 태도와 청소년의 태도를 직접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관련 이데올로기, 가치나 집단정체성 등의 심리기제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접촉과 집단정체성 혹은 다문화관련 이데올로기와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주민 외집단에 대해 느끼는 위협감이나 불안이 정체성, 이데올로기 및 접촉이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매개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 시대의 통합과 공존을 위한 심리학적 방안과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토 및 제안을 2010년 실시된 전국적 조사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다음에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연구 문제와 관련된,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그 심리적 기제에 대해 관련 국내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범주화, 사회정체와 내집단편애

사회정체이론(Social identity theory; Tajfel, 1982; Tajfel & Turner, 1979)은 사람들의 정체감을 개인적 정체와 사회정체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개인적 정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개인적 특징에 의거해 가지는 정체감이고, 사회정체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성원으로서 가지는 정체감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대상을 '우리'와 '그들'로 범주화하여(범주화과정) 사회정체를 가지게 되는데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자신이 속한 집단을 타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는 것이다(내집단편애 과정). 즉, 사람들의 자아존중은 일부 긍정적 사회정체(즉, 집단인으로서의 정체)로부터 이끌어 내어 지는데, 사회정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타집단에 비해 자신이 속한 내집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사회적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따라서 사람들이 내·외집단으로 집단을 범주화하고 이에 따른 여러 정보처리의 특성이 나타나는 인지과정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정체를 높이는 동기적 과정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자아존중과 내집단 편애의 관계에 대해서나 혹은 자아존중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연구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여러 연구 결과, 자아존중이 낮은 사람들이 낮은 자아존중을 보완하기 위해 내집단편애를 보이기보다는, 집단동일시가 강한 사람들(즉, 집단정체성이나 집단자아존중이 높은 사람들)이 특히 집단의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더욱 내집단편애와 상대적 외집단 비하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Crocker & Luhtanen, 1990).

사회정체가 높을수록 내집단편애가 더욱 높아진다는 결과는 서구의 많은 연구들,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도 밝힌 바 있다 (김금미, 한영석, 2002;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 2003; 박근석, 한덕웅, 2003;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 2004; Ellemers, Doosje, Knippenberg, & Wilke, 1992; Ellemers, Knippenberg, & Wilke, 1990; Ellemers, Wilke, & Knippenberg, 1993; Hogg & Abrams, 1988; Spears, Jetten, & Doosje, 2001; Tajfel & Turner, 1979, 1986; Turner & Brown, 1978; Wright, Taylor, & Moghaddam, 1990). 사회정체 이론의 맥락에서 수행된 연구는 아니지만, 인종관련 태도에 관한 한 연구(노경란, 방희정, 2008)에서 한국대학생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대학생(백인, 흑인 및 동남아시아인)들의 한국인, 백인, 흑인 및 동남아인에 대한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IAT)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대학생은 암묵적, 명시적 수준에서 모두 강한 내집단 선호를 보였고, 외집단 중 백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었던데 반해 흑인과 동남아인에 대해서는 비호의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국내체류 외국대학생들은 암묵적 태도에서는 백인 선호가 나타났는데, 명시적으로는 백인 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보다 집단주의적인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인종 내집단 편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사회정체 이론이 내집단편애를 설명하는 과정 중 범

주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일군의 연구들이 있다. Gaertner, Mann, Murrell & Dovidio (1989)와 Gaertner, Mann, Dovidio, Murrell과 Pomare (1990)은 순전한 집단범주 구분의 형태가 집단간 편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집단간 경쟁을 하여 내집단 편애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재범주화(recategorization)를 통해 '한집단'으로 다시 범주화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전의 외집단에 대한 호감을 증가시켰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심리학과 학생들'과 '사회학과 학생들'이 아닌 '같은 대학 학생'으로 재범주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집단인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탈범주화(decategorization)도 집단간 호감 차이를 줄인 결과를 얻었다. 탈범주화가 내집단편애를 줄이는 것은 그러나 내집단에 대한 호감을 줄이는 효과를 통해 나타났다. 후속 연구들은 그러나 재범주화나 탈범주화의 효과가 제한된 상황에 국한된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의 큰 집단으로의 동화의 압력(즉, 재범주화)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두 집단 성원들이나 혹은 소수 집단 성원들에게는 위협으로 지각되기 쉬어 (Brewer, 2000; Gonzalez & Brown, 2006), 오히려 반발과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최근에 들어 Crisp와 Hewstone (2007)은 (집단)구분(differentiation)이 집단간 편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차범주화(crosscutting categories: 한 범주차원에서는 외집단이나 다른 범주 차원에서는 내집단인)나 상위범주화(superordinate categorization 혹은 공통범주화 common in-group)가 집단 구분을 약화시키고 따라서 편견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교차범주화나 상위범주화는 재범주화의 서로 다른 형태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그러나 이러한 기본 과정을 조절하는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중요한 것이 내집단 동일시(ingroup identification)라고 주장하였다. 즉, 위에서 제시한 교차범주화나 재범주화가 집단 구분을 약화시켜 편파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는 내집단 동일시가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타나지만, 내집단 동일시가 강한 경우나 오랫동안 갈등관계에 있어 왔던 집단관계의 경우에는 교차범주화나 재범주화로 인한 집단구분의 약화가 오히려 집단동

특성(distinctiveness)을 위협하여 외집단 비호감이나 편견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체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 사회에 외국인주민의 수가 보다 증가함에 따라 인종 범주가 보다 특출하게 되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적 특성에 의해 여전히 집단주의적 경향성이 높으므로, 인종에 의거한 사회정체 높이기보다 강할 수 있다. 아울러 이주민 수의 급증 등으로 인한 정체성의 위협감 혹은 불안으로 인하여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상대적 비하가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따라서 한국인으로서의 동일시와 집단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높는데, 이는 특히 정체성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더욱 그러하리라는 예언을 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Crisp와 Hewstone(2007)이 제안하는 대로 내집단동일시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 동화주의 신념(즉, 한집단정체성 강조)이 높아지면 외집단 편견이 줄어드는 데 반해(집단 구분이 줄어들므로), 보다 내집단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에서는 이러한 동화주의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위협하여 그 결과 오히려 편견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아무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 조사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성인과 청소년의 이주민관련 태도가 어떠한 지를 비교 검토하고, 또한 이러한 태도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집단정체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현실적 갈등

사람들이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가지게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현실적 갈등 때문이다(Sherif, Harvey, White, Hood & Sherif, 1961). 즉 주요 자원을 가지고 집단간 경쟁을 해 온 집단들끼리 적대감과 편견적 태도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들이 실질적 자원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외집단 비하가 나타난다고 보는 이 관점은 실질적 집단 갈등이론으로서, 예를 들어, 흑인에 대한 편견이 제일 심한 백인의 계층은 흑인의 바로 위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들이라는 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우리나라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남아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사회의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일부 한국 사람들의 신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실상, 양계민(2009, 2010)은 우리나라 청소년과 성인이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조선족 등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데에 있어 권위주의 성격이나 사회정체감보다 현실적 갈등인식이 가장 설명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시 한번 이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범주화와 집단간 접촉

서로 다른 집단들간의 반목과 편견적 태도는 오랫동안 접촉하지 않은 데에서 오는 비친숙성과 긍정적 상호 접촉 경험의 부족에 기인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접촉의 경험을 증진시킴으로써 집단간에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인종간 통합 학교나 이스라엘에서의 중동 출신 이스라엘 어린이들과 서양 출신 이스라엘 어린이들과의 학교 통합이 그 예이다(Amir & Ben-Ari, 1989; Cook, 1984; Schwartzwald & Amir, 1984). 그러나 이러한 접촉 방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Allport, 1954):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의존적인 긴밀한 접촉을 가지며, 또한 그 사회의 규범이 평등을 선호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또한, 접촉의 긍정적인 효과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실은 외집단의 한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접촉이 외집단 전체에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점이다(Hewstone, 1996). 이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외집단이 그 집단의 전형적 구성원으로 지각되어야 한다.

보다 최근 들어 Pettigrew와 Tropp (2006)은 메타분석을 통하여, 접촉의 효과는 소수 집단보다는 다수 집단에 있어 더 효과적이고, 또한 한 개인을 넘어서 외집단 전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접촉의 긍정적 효과는 주로 긍정적 측면(즉, 호감, 긍정 감정 등)의 증진에서 나타나고 고정관념의 개선 효과는 보다 약하다 (Tropp &

Pettigrew, 2005). 이 메타분석에서는 또한 이러한 접촉의 효과는 외집단을 접촉하는 데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때문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유럽의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기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접촉의 효과를 검토한 Binder, Zagefka, Brown, Funke, Kessler, Amelie, Maquil, Demoulin과 Leyens (2009)는 접촉의 효과는 접촉이 편견을 감소하는 효과와 편견이 접촉을 감소하는 효과가 모두 나타나는데, 접촉이 편견을 줄이는 효과는 접촉의 질 (접촉의 친밀도로 측정)이 접촉의 양(이는 사람의 수 등으로 측정)에 비해 더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접촉효과는 소수 집단에서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다수 집단에서 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접촉함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사회적 거리감이 감소되는 것은 친밀한 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일군의 연구자들(Pettigrew, Christ, Wagner & Stellmacher, 2007; Tausch, Hewstone, Kenworthy, Cairns & Christ, 2007)은 접촉 효과를 매개하는 집단간 불안의 감정은 보다 개인주의적 요인이어서 주로 집단정체성이 낮은 사람에 있어 효과를 발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집단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보다 집단적 요인들-즉, 정체성 위협 혹은 집단이 처한 현실적 이득 위협-이 접촉의 효과를 매개한다고 보았다. 즉 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은 외집단과 접촉하여 집단간 불안의 감정이 감소함으로써 편견이 줄어들고, 한편 집단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외집단과 접촉하여 개인이 가지는 편견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는 보다 집단적 차원의 위협인 집단정체성 위협 혹은 이득 위협(즉, 현실적 위협)이 감소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이다.

한편, 직접 접촉이 아닌 간접 접촉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연구들이 있다. '확장된 접촉(extended contact)', 즉 외집단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친구가 외집단 친구를 가진 것을 알게 되거나 보게 되는 경우, 외집단에 대한 호감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Wright, Aron, McLaughlin-Volpe & Ropp, 1997). 즉,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 효과로 이러한 방법은 외집단과의 직접 접촉이 야기할 수 있는 불안을

피하면서 '외집단 성원을 자기(self)안에 포함시킬'(inclusion of others in the self) 수 있게 되어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일부 언급했듯이, 사회정체이론은 접촉효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외집단 구성원들과의 접촉 효과가 접촉시의 범주화 형태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들에 기반한 연구들은 특히 특정 외집단 구성원과의 접촉 효과가 외집단 전체로 일반화되는 지에 대해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Gonzalez & Brown, 2006). 이러한 모델들은 크게 보아 **탈범주화 접촉 모형(DCM: Decategorized Contact Model)**, **공동내집단정체 모형(CIIM: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상호적 집단구분 모형(MIDM: Mutual Intergroup Differentiation Model)**과 **이중정체 모형(DIM: Dual Identity Model)**들로 구분된다. 탈범주화접촉 모형(Brewer & Miller, 1984)은 외집단과 접촉할 때 집단구성원으로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으로 간주하여 접촉을 하는 것이 편견을 줄이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는 모형인데, 이러한 효과는 개인화된 정보처리를 일으켜 접촉한 특정 개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줄일 수는 있으나, 감소된 편견 효과가 외집단 전체로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Gonzalez & Brown, 2006; Rothbart & John, 1985). 공동내집단 모형(Dovidio & Gaertner, 2010; Gaertner, Mann, Murrell & Dovidio, 1989)은 내집단, 외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상위범주로 상대를 범주화하면서 접촉을 하는 것이 편견을 감소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 모형이다. 연구들은 이러한 재범주화 혹은 상위범주화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범주화의 효과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를 가진다. 첫째는 이 방법 역시 하위집단 구분을 무시하는 전략이므로 외집단 전체로 일반화되는 효과가 약하다는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실험실 연구가 아닌 현실에서는 기존의 범주를 해체하고 새로운 상위범주로 하나를 만드는 일은 실현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연구들은 이러한 재범주화 혹은 하위집단을 부인하거나 해체하고 하나의 상위집단으로 동

화시키고자 하는 압력은 하위집단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독특성(distinctiveness)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여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Crisp & Hewstone, 2007; Dovidio, Gaertner & Saguy, 2007 & Hornsey & Hogg, 2000; Verkuyten, 2010). 상호적 집단구분모형(Hewstone & Brown, 1986)은 두 집단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인정과 협력을 추구하는 관계를 유지할 때 편견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모형이 제안하는 접촉 유형은 앞의 두 모형이 제안하는 접촉 방식과 달리 하위 집단들의 구분과 정체성이 뚜렷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다른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간의 긍정적 접촉 경험이 외집단 전체로 일반화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즉, Allport가 제안한 긍정적 접촉의 필요 조건-동등한 지위에서의 상호의존적 협력과 긍정적인 개인적 상호작용 및 기관의 지지-이 충족된다면 한 특정 외집단과의 긍정적 접촉 경험이 외집단 전체로 일반화되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의 충족이 매우 어렵고, 또한 하위집단 구분이 매우 특출해지는 상황에서의 외집단과의 접촉은 위협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이중정체 모형(Gonzalez & Brown, 2006; Dovidio, Gaertner & Saguy, 2007; Dovidio & Gaertner, 2010; Hornsey & Hogg, 2000)은 하위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상위집단으로서의 정체성도 함께 가지면서 접촉하는 경우, 외집단과의 접촉이 가져올 수 있는 불편함과 불안도 줄이면서 한편 이러한 긍정적 접촉의 경험이 외집단 전체로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내집단 모형의 주창자인 Dovidio와 Gaertner(2010)는 최근 들어 자신들의 공동내집단모형의 확장을 제안하면서 이중정체 모형을 공동내집단화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켰다.

본 조사 연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과 접촉함으로써 편견이 감소되는지, 접촉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촉의 긍정적 효과가 집단간 불안이나 위협의 감정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래에 기술했듯이 이러한 접촉의 효과가 다양한 범주관련 이데올로기와 상호작용하여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문화주의 및 동화주의 이데올로기(혹은 문화적응전략), 접촉과 편견

위에서 논의한대로 사회정체 이론은 일반적으로 두 집단간 관계가 범주화와 집단정체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Berry (1984, 2001, 2003)는 특히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인종정체성과 범주관련 신념(이데올로기) 및 문화적응전략이 인종간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Berry(2002)는 특히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의 문화적응전략을 소수 집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수 집단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이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듯이 Berry는 소수(이민) 집단의 문화적응전략 혹은 문화이데올로기를 두 차원에서 고찰하고 있는데, 한 차원은 자신의 고유(전통) 문화와 집단에 얼마나 동일시하는가 이고, 다른 차원은 주류 집단과의 긍정적 관계를 얼마나 추구하는가 혹은 주류 문화를 얼마나 수용하는가의 차원이다. 이러한 두 차원의 조합 유형은 총 4가지인데, 통합(전통문화와 주류문화에 모두 동일시), 동화(주류문화에는 동일시하지만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약하게 동일시), 분리(고유문화에 동일시하나 주류문화는 무시)와 주변화(주류문화나 고유문화에 모두 동일시하지 않음)이다. Berry는 다수(주류) 집단 성원들에 있어서도 소수 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차원에서 문화정책전략이 변화하여 네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이 소수 집단의 정체성이나 적응전략에 상응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각각 다문화주의, 용광로(동화주의), 분리 및 배척이다.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이주민들의 고유한 정체성과 생활방식을 존중하고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면서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이념체계 혹은 정책이다. 이에 비해 동화주의(용광로) 이데올로기는 지배 문화의 우월성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하여 지배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를 변화시키지 않는 전략으로 (Fredrickson, 1999), 이주민들이 그들의 정체성과 고유문화 대신에 주류집단의 정체성과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주류집단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이다. 분리주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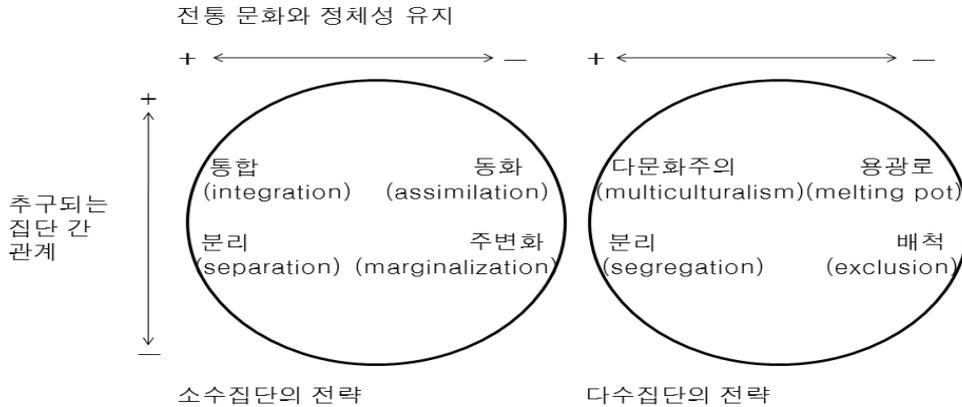


그림 1. Berry (2003)의 문화적응 전략: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

혹은 이데올로기는 소수 집단으로 하여금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도록 하되 주류집단과는 교류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고, 마지막으로 배척 전략은 소수인종집단을 배척하여 그들만의 고유문화를 추구하도록 지원하지도 않고 주류집단과의 교류나 관계증진도 추구하지 않는 정책을 의미한다. Berry는 주류집단 혹은 정부의 인종관계 정책이나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민집단의 적응 전략도 그에 상응하여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다수 집단이 다문화주의 신념을 지지할 때 소수 집단은 통합적 정책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달리 사회의 주류 집단 구성원의 대부분이, 혹은 정부나 기관의 정책이 동화(용광로), 분리 혹은 배척하는 신념을 지지하거나 혹은 정책을 채택하면 소수 집단이 통합적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게 된다.

Brown과 Hewstone (2005) 그리고 Dovidio 등 (2007)은 이러한 Berry의 인종집단 관계에 대한 분석틀과 사회정체이론에서 강조하는 범주화에 의거한 집단관계 분석틀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Berry의 분석틀은 주로 다인종 사회에서 이민 인종의 정체성과 인종집단관계가 전통 집단에 대한 동일시 정도와 주류 집단에 대한 동일시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한편 사회정체 이론은 보다 일반적 집단 관계에 있어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어떻게 범주화하는가에 의해 집단관계가 영향 받는다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이론 모두 상호작용하는 집단의 성원들이 자신의 집단에 대해 혹은 상대 집

단에 대해 얼마나 동일시하고 친밀하게 느끼는지 혹은 어떻게 범주 구분을 하는 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Brown과 Hewstone (2005), 그리고 Dovidio 등 (2007)은 특히 이중정체 모형이 '통합' 정체성 혹은 다문화주의 문화적응전략(이데올로기)에 상응하고, 공동내 집단 모형이 '동화정체성' 혹은 '동화주의(용광로)' 전략에, 구분되는 하위집단정체성(separate groups)모형이 '분리주의' 정체성 혹은 문화적응전략에, 그리고 탈범주화모형이 '주변화' 정체성 혹은 배척 전략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Verkuyten(2005)은 사회정체성이론(Tajfel & Turner, 1986)에 기반을 두어 다수·소수 인종집단이 가지는 인종관계 관련 이데올로기가 집단정체성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연구를 통해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네델란드 사람들(즉 다수 집단)과 네델란드 거주 터키이민자(즉 소수 집단)들에게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 혹은 동화주의 이데올로기를 글로 접하게 한 다음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 정도와 외집단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네델란드 참여자에 있어 다문화주의는 소수 집단의 정체성을 지지하도록 하고 소수 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반면 (즉, 편견 감소), 동화주의는 다수 집단의 우세한 정체성에 대한 정당화를 제공하여 다수 집단으로 하여금 자신의 집단에 더 동일시하고 소수 집단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즉, 다수 집단이 다문화주의를 지지할수록 내집단에 덜 동일시하고 소수

집단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동화주의를 지지할수록 내집단에 더 동일시하고 소수 집단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소수 집단은 다문화주의에 동의할수록 자신의 집단에 더 동일시하고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동화주의에 동의할수록 자신의 집단에 덜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Hwang, Kim과 Kim (2009)은 실험 연구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다문화주의 신념과 태도를 옹호하는 에세이 혹은 동화주의 신념을 주장하는 글을 보여주고 (세 번째 집단은 아무 글도 읽지 않은 통제집단이었음),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찬성 정도와 이주민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Verkuyten (200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글을 읽은 참여자들은 통제집단의 경우보다 더욱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에 찬성하였고, 또한 동남아시아인에 대한 암묵적 태도가 덜 편견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동화주의 신념의 글에 노출되었던 참여자들은 다른 두 조건 of 참여자들과 태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다른 연구들(Brown과 Hewstone, 2005; Dovidio 등, 2007)은 위에서 언급한 실험 연구 결과와 다른 연구 결과들을 얻었다. 즉 다수 집단이 동화주의를 지지할수록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다. 한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Crisp와 Hewstone (2007)은 동화주의 신념이 편견을 줄이는 효과는 내집단동일시에 의해 조절된다고 보았다(즉, 동화주의가 편견을 줄이는 효과는 내집단정체성이 낮은 경우에 주로 적용되고, 집단동일시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오랫동안 갈등 관계에 있던 두 집단들에 있어서는 동화주의 혹은 공동내집단 범주화 전략은 집단구분 약화의 위협감을 일으켜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경우는 다문화주의 혹은 이중정체성 전략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민을 바라볼 때 (혹은 접촉할 때) 얼마나 다문화주의 혹은 동화주의 신념을 가지고 바라보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신념이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로 다른 인종관련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이 이주민과 긴밀한 혹은 피상적 접촉을 하는 것이

편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접촉의 정도와 범주화유형 혹은 문화적응관련 이데올로기와의 상호작용이 편견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바 없다.

가치와 편견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는 여러 가치나 동기가 개입되어 있다. 미국의 인종 편견에 관한 이론들은 소수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양가감정적 태도(ambivalent racism) 혹은 혐오적 인종주의(aversive racism) 태도는 백인들이 가지는 개인주의적 가치(즉, 자립주의, 근면주의 혹은 형평에 대한 가치)와 평등주의적 가치가 상충하는 데에서 오는 불편한 감정이나 불안한 감정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Gaertner & Dovidio, 1986; Katz & Hass, 1988). 즉, 백인들이 가지는 보다 개인주의적 가치는 정부에 의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등의 혜택을 받는 흑인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한편 인종평등주의 가치는 흑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가지게 하여 양가감정을 보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형평 가치가 특출해 지면 백인참여자들에게 있어 소수 집단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에 반대하는 태도가 나타났고, 반대로 평등 가치가 특출해 지면 소수 집단에 보다 동조적인 태도가 나타났다. 또한, Mackie, Devos와 Smith (2000)는 사람들은 자신과 상반되는 가치(즉, 자유주의적 혹은 보수주의적)를 가지는 사람들을 외집단으로 규정하고, 외집단 성원들은 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는 사람들로 간주하므로 이러한 가치의 갈등이 그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분노 혹은 두려움)을 유발시켜 서로 대치하거나 혹은 회피하고자 하는 행동 경향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신봉하는 가치가 편견적 태도와 관련된다는 우리나라 연구들은(김혜숙, 2002, 2007) 주로 권위주의 가치(즉, 사회적 권력과 사회적 인정을 중요시함), 자기지도 가치(보다 개인주의적 가치-독립, 자유, 통제 및 완성 중요시) 및 보편주의 가치(일반적 타인들에

대한 배려, 사회정의, 평등 중시)가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권위주의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등 사회의 소수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을 돕는 정책에 보다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반면 보편주의 가치는 이들 약자 집단에 대한 보다 긍정적 태도와 감정 그리고 이들을 위한 정책에 찬성하는 태도와 연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지도 가치는 편견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특히 보편주의 가치와 권위주의 가치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연관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검토한대로, 본 조사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한 주요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민(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에 대해 가지는 태도(감정 온도, 사회적거리감, 감정, 신념)가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 검토하고, 또한 이러한 태도가 성인과 청소년간, 남녀 간 및 소득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및 동화주의 신념, 접촉, 위협감 및 가치의 효과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2-1).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정체성 위협 및 현실적 위협 등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이러한 효과가 집단간 불안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토한다: 사회정체이론이 제안하는 대로, 한국인 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에 비해 내집단에 대한 위협(현실적 혹은 정체성관련 위협)을 인식할 때 더욱 외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높아지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가 집단간 불안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토한다.

(2-2). 접촉(아는 사람 수와 친구 수 및 만나는 빈도)에 의해 어떻게 영향 받는지, 그리고 이러한 접촉의 효과가 불안이나 위협의 감정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선행 연구 결과가 제안하는 대로, 접촉의 유형에 따라 편견 감소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아울러 접촉의 효과가 집단간 불안이나 위협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2-3). 다문화주의 혹은 동화주의 신념의 영향 그리고 이 신념들과 접촉과의 상호 작용의 영향(즉, 이러한 신념들을 가지고 접촉하는 것의 효과)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집단들이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면서 공존해야 한다고 믿는 다문화주의 신념이 높을수록 편견은 줄어드는 반면, 다수 집단에 소수 집단이 동화해야 한다고 믿는 동화주의 신념이 높아지면 편견이 높아지는지를 검토하고, 이러한 효과가 접촉의 수 혹은 빈도가 높아지면 더욱 확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2-4). 다문화주의 혹은 동화주의 이데올로기와 집단정체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즉, 집단정체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에 있어 다문화주의 신념 혹은 동화주의 신념을 가지는 것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2-5). 보편주의 가치 혹은 권위주의 가치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보편주의 가치가 높으면 외집단 편견이 줄어들고, 반면 권위주의 가치가 높아지면 편견이 높아지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를 매개하는 변인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조사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보다 포괄적으로 참여자(성인, 청소년)를 포함하였고, 이주

민에 대한 태도를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비교한 특징을 가지며, 또한 집단갈등 및 편견에 개입되어 있는 심리적 요인 및 기제-집단정체성, 불안, 위협, 문화적 응이데올로기, 접촉 및 가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방 법

조사참여자 및 표집

다단계 층화 표집방법을 사용한 전국적 조사연구(2010, 5월 조사)를 통해 대학생 이상(19세-74세) 성인 1000명(남녀 각 500명)과 12-18세 중고등학교 청소년 800명(남녀 각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이들에 대한 개별적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인구학적 구성이 표 2에 나타나 있다.

조사내용 및 도구

조사 내용은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집단(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에 대해 가지는 태도(감정온도, 사회적 거리감), 감정 및 신념을 내집단인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태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이러한 태도가 한국인들이 가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집단자아존중), 다문화주의 혹은 동화주의 이데올로기, 보편주의 및 권위주의 가치, 위협감(이득, 정체성) 그리고 이주민들과의 접촉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를 검토하였다.

감정온도

각 이주민 집단(한국인 포함)을 생각할 때의 느낌을 0°(매우 차가움)-99°(매우 따뜻함)으로 표현해 달라고 하였다.

사회적 거리감

Bogardus(1925)의 사회적 거리감 척도에 근거하여 발췌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각 대상 집단에 대해 '나의 가까운 가족과 결혼하는 것을 환영하겠다', '세를 주겠다', '단짝 친구가 될 수 있다' 및 '직장 동료로 받아

들이겠다'의 네 가지 사회적 관계를 묻는 질문에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하게 느낀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거리감 척도 점수 평균의 신뢰도(Cronbach α)는 .84였다.

감정

각 대상 집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6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Fiske, Cuddy, Glick,과 Xu (2002)와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2003)에서 집단간의 주요 감정으로 밝혀진 '즐겁다, 그립다, 정이 간다, 존경할만하다, 좋다, 불쌍하다, 불안하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불편하다, 두렵다'를 사용하였다. 평가는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각 감정에 대한 응답을 요인분석한 결과 긍정감정(즐겁다, 그립다, 정이 간다, 존경할만하다, 좋다), 부정감정(불안하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화가 난다, 불편하다, 두렵다) 및 연민(불쌍하다, 슬프다)으로 구분되었다. 긍정감정에 대한 Cronbach α 는 .86이었고, 부정감정은 .89, 그리고 연민의 감정은 .7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신념(고정관념)

각 대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은 유능성과 따뜻함의 특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김혜숙 등, 2003; Fiske 등, 2002). 유능성 특성은 각 대상 집단이 유능함, 자신감이 있음 및 지적인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고(Cronbach α .78-.85), 따뜻함 차원은 따뜻함, 착함 그리고 정이 많음으로 평가하도록 요청하였다(Cronbach α .79). 평가는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집단정체성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한국인 정체성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한국형 집단자아존중 척도(김혜숙, 1994)에서 사적집단자아존중 하위척도 두 문항('전반적으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가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과 정체성 하위척도 두 문항('전반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

표 1. 인구학적 변인별 참여자 수

		남성(%)	여성(%)	계
성별		893(49.6%)	907(50.4%)	1800(100%)
나이	10대	400(44.8%)	400(44.1%)	800(44.4%)
	20대	101(11.3%)	95(10.4%)	195(10.9%)
	30대	110(12.3%)	107(11.8%)	217(12.1%)
	40대	114(12.7%)	111(12.2%)	224(12.5%)
	50대	86(9.7%)	88(9.6%)	174(9.7%)
	60대 이상	82(9.2%)	107(11.8%)	189(10.5%)
지역	서울	175(19.6%)	180(19.8%)	355(19.7%)
	경기/인천	261(29.2%)	365(29.2%)	526(29.2%)
	충청/대전	92(10.3%)	93(10.1%)	184(10.3%)
	전라/광주	93(10.4%)	96(10.6%)	189(10.5%)
	경상/부산/울산/대구	235(26.3%)	236(26.0%)	471(26.2%)
	강원	27(3.1%)	27(2.9%)	54(3.0%)
	제주	11(1.2%)	11(1.2%)	21(1.2%)
	계	893(49.6%)	907(50.4%)	1800 (100%)
가계 소득 수준	150만원미만	47(5.3%)	58(6.4%)	105(5.9%)
	150만원이상 ~ 300만원미만	285(32.1%)	248(27.5%)	533(29.8%)
	300만원이상 ~ 400만원미만	290(32.7%)	322(35.7%)	612(34.2%)
	400만원이상 ~ 500만원미만	209(23.5%)	202(22.4%)	411(23.0%)
	500만원이상	57(6.1%)	71(7.9%)	128(7.2%)
계	888(49.6%)	901(50.4%)	1789	

민이라는 사실은 나의 자아개념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나의 자아개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을 발췌하여 포함시켰다. 평가는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고, 이 네 문항들의 신뢰도는 .63이었다.

이주로 인한 위협감

이주로 인한 위협감은 크게 정체성 위협과 현실적 이득 위협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은 Berry (2006)와 양계민(2009)이 사용한 문항들 중 총 5 문항을 포함시켰다. 정체성 위협 문항들은 '이주민 집단의 증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를 위협할 수 있다', '이주민 집단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우리 민족의 고유성을 잃게 될 것이다'였고 이들 문항의 신뢰도는 .79였다. 현실적 이득 위협 문항은 '이주민 집단의 증가

에 따라 범죄율도 증가할 것이다', '이주민집단은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킬 것이다'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를 포함하였는데, 신뢰도는 .77이었다. 평가는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문화적응 신념

문화적응 신념은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와 동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들은 Verkuyten (2005)의 연구에서 발췌한 문항으로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 측정 3문항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 집단이 있을수록 더 좋은 사회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들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내 다양한 문화집단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였고 (Cronbach α =.66) 동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측정하는 두 문항은 '한국에 거

주하는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동화, 흡수되어야 한다'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은 한국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신뢰도는 .68이었다. 평가는 6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6=매우 그렇다)상에서 답변하도록 하였다.

가치

김혜숙 (2002, 2007)이 사용한 가치 척도 중 보편주의 4문항(평등, 사회정의, 마음이 넓은(다른 사상이나 신념에 관대함), 환경보호)과 권위주의 2문항(사회적 권력, 권위)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원래 Schwartz (1992)의 가치 척도를 Maio와 Olson (1995)이 단축판으로 만든 척도를 한국판으로 번안한 척도이다. 평가 척도는 6점 척도로 각 가치들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1=전혀 중요하지 않은, 6=매우 중요한). 보편주의 문항들의 신뢰도는 .70이었고, 권위주의 척도는 .73이었다.

접촉

각 이주민들과의 접촉은 접촉한 친구의 수와 이웃의 수, 그리고 각 집단의 친구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의 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Turner, Hewstone, Voci와 Vonofakou (2008)의 연구에 포함된 접촉양의 측정이었다. 그런데 분석 결과 접촉수(즉, 친구의 수와 이웃의 수의 평균)와 접촉빈도의 효과가 반복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들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접촉의 수(1=친구가 없다, 2=1-2명, 3=3-4명, 4=5-6명, 5=7-8명, 6=9명 이상)와 접촉빈도(1=전혀 만나지 않는, 6=매우 자주 만나는)의 평가는 6점 척도로 하도록 하였다.

결 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집단정체성 및 주요 다른 종속측정과 인구학적 변인의 영향

먼저 연구문제 1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평균을 참여자 성별과 참여자 유형별(성인 대 청소년)로 표 2에 기술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

평가는 다섯 개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평가 평균을 구하여 기술하였다. 이 전체 평균들을 살펴보면, 이주민에 대한 감정온도나 사회적 거리감 등의 태도 평가는 중간 점수를 얻어 그리 부정적이지는 않았으나, 한국 사람들(즉, 내집단)에 대한 평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았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긍정 감정이 낮았고 한편 부정 감정도 낮았으며 연민의 감정은 중간보다 좀 낮았는데, 한국인에 대한 평가에 비해 긍정감정은 상당히 낮았고 부정감정은 약간 더 높았으며 연민의 감정은 보다 더 높았다. 이주민에 대한 신념 중 '따뜻함' 평가에 비해 '유능성' 평가는 중간점수 이하로 낮았는데, 이는 남한 사람들이 이주민에 대하여 가지는 고정관념 중 보다 강한 것이 '유능하지 않다'라는 것임을 지적해 준다.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에 의하여 가지게 되는 정체성 위협감이나 이득 위협감은 중간 점수 정도였고, 한편 다문화주의 신념이나 동화주의 신념은 온건한 정도로 높은 편이었는데, 동화주의 신념 정도가 다문화주의 신념보다 약간 더 높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주민과 거의 접촉하지 않아 접촉의 수나 빈도가 '전혀 없다'에 가까웠다.

인구학적 변인별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 다문화 신념, 가치 및 접촉 등이 달라지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성별과 참여자 유형의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 등은 모든 이주민 대상 집단 평가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외집단 감정온도, 사회적 거리감, 고정관념, 긍정감정에 있어서 더 부정적이었다. 동화주의 신념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낮게 나타났으나 다문화주의 신념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 높았다. 한편, 정체성 위협은 3.7정도로 중간이상이었는데 청소년이 성인보다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접촉의 수나 빈도 평균을 보면 전혀 친구가 없거나 접촉이 없다는 응답이었는데, 그럼에도 성인이 청소년보다 접촉 수의 평균이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한 동의는 4점에 가까워 찬성하는 편이었는데, 성인이 청소년보다 더 높았다.

한편 성별 차이는 외집단에 대한 연민의 감정과 보편주의 가치에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외집단에

표 2. 성별과 참여자유형에 따른 외집단에 대한 태도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참여자						전체	내집단	F (유의미)	p
	청소년			성인						
	남	녀	계	남	녀	계				
외집단 감정온도	51.75 (12.08)	52.35 (13.49)	52.05 (12.80)	54.60 (12.07)	53.43 (12.19)	54.01 (12.14)	53.14 (12.47)	76.43 (15.08)	참여자 11.14	**
외집단 사회적 거리감	3.42 (0.83)	3.43 (0.90)	3.43 (0.86)	3.61 (0.82)	3.52 (0.81)	3.57 (0.81)	3.50 (0.84)	5.29 (0.76)	참여자 13.39	***
외집단 유능함	2.87 (0.69)	2.85 (0.70)	2.86 (0.70)	3.04 (0.68)	2.97 (0.67)	3.00 (0.67)	2.94 (0.69)	4.39 (1.00)	참여자 19.15	***
외집단 따뜻함	3.41 (0.75)	3.43 (0.79)	3.42 (0.77)	3.63 (0.70)	3.53 (0.69)	3.58 (0.70)	3.51 (0.73)	4.34 (0.93)	참여자 20.61 상호작용 3.08	*** +
외집단 긍정적 감정	2.86 (0.73)	2.87 (0.75)	2.86 (0.74)	3.04 (0.71)	2.98 (0.69)	3.01 (0.70)	2.95 (0.72)	4.31 (0.87)	참여자 19.88	***
외집단 부정적 감정	2.44 (0.65)	2.47 (0.66)	2.46 (0.65)	2.47 (0.64)	2.52 (0.68)	2.50 (0.66)	2.48 (0.66)	2.04 (0.79)	n.s.	
외집단에 대한 연민	3.12 (0.76)	3.16 (0.75)	3.14 (0.75)	3.19 (0.78)	3.28 (0.78)	3.23 (0.78)	3.19 (0.77)	2.11 (0.95)	참여자 6.58 성별 3.08	* +
집단정체성	4.28 (0.67)	4.28 (0.76)	4.28 (0.71)	4.31 (0.72)	4.26 (0.75)	4.28 (0.74)	4.28 (0.73)		n.s.	
정체성위협	3.73 (1.07)	3.74 (1.07)	3.73 (1.07)	3.78 (1.06)	3.86 (1.06)	3.82 (1.06)	3.78 (1.06)		참여자 2.88	+
현실적 이득 위협	3.78 (0.93)	3.74 (0.94)	3.76 (0.94)	3.77 (0.96)	3.84 (0.95)	3.81 (0.96)	3.78 (0.95)		n.s.	
다문화주의 신념	4.11 (0.78)	4.16 (0.77)	4.13 (0.77)	4.05 (0.77)	4.08 (0.71)	4.07 (0.74)	4.10 (0.76)		참여자 3.58	+
동화주의 신념	4.26 (0.96)	4.28 (0.93)	4.27 (0.95)	4.35 (0.87)	4.35 (0.87)	4.35 (0.87)	4.32 (0.91)		참여자 3.41	+
보편주의 가치	4.99 (0.73)	5.11 (0.67)	5.05 (0.70)	5.05 (0.67)	5.07 (0.66)	5.06 (0.67)	5.06 (0.68)		성별 4.46	*
권위주의 가치	4.38 (1.10)	4.33 (1.14)	4.36 (1.12)	4.30 (1.06)	4.32 (1.06)	4.31 (1.06)	4.33 (1.09)		n.s.	
접촉 수	1.07 (0.20)	1.08 (0.21)	1.07 (0.20)	1.15 (0.28)	1.13 (0.25)	1.14 (0.27)	1.11 (0.24)		참여자 34.57	***
접촉 빈도	1.04 (0.20)	1.07 (0.28)	1.06 (0.24)	1.08 (0.25)	1.07 (0.26)	1.08 (0.26)	1.07 (0.25)		n.s.	
다문화정책동의	3.96 (0.64)	3.97 (0.58)	3.97 (0.61)	4.02 (0.61)	4.04 (0.62)	4.03 (0.61)	4.00 (0.61)		참여자 4.37	*

주 1.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2. 감정온도는 0-99로 변화하였으며 나머지 측정은 모두 6점 척도(1=전혀, 6=매우)상의 점수임.

3. 사회적 거리감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한 관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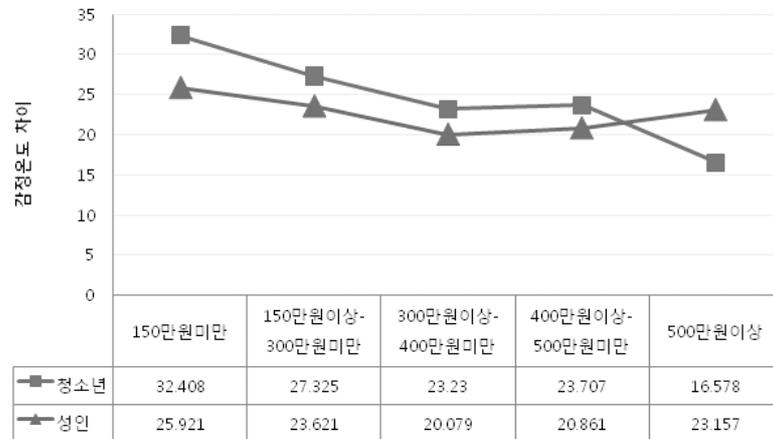


그림 2. 감정온도 차이(내집단-외집단)에 대한 참여자유형과 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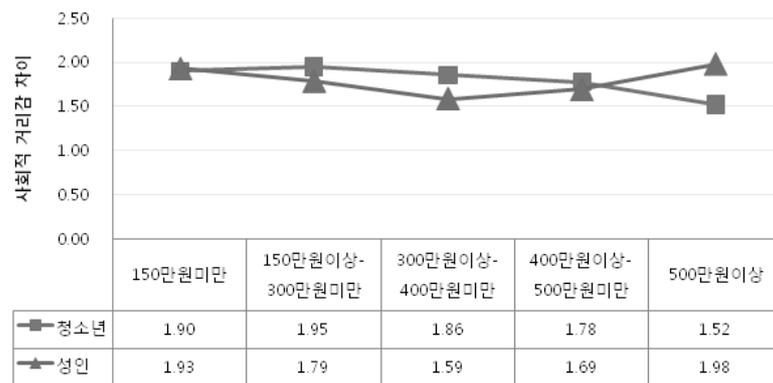


그림 3. 사회적거리감 차이(내집단-외집단)에 대한 참여자유형과 소득의 상호작용 효과

대한 연민의 감정이 더 크고 보편주의 가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외집단 따뜻함의 평가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에 있어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 성인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좋게 평가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 내집단에 대한 태도와 비교한 이주민에 대한 상대적 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감정온도 차이와 사회적 거리감 차이에 대해 소득, 참여자유형, 그리고 성의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감정온도 차이와 사회적거리감 차이가 클수록 외집단에 대한 상대적 편견 혹은 내집단 편애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구분은 통계청(2010)의 '가계동향자료'에 근거하여 5집단으로 구분하였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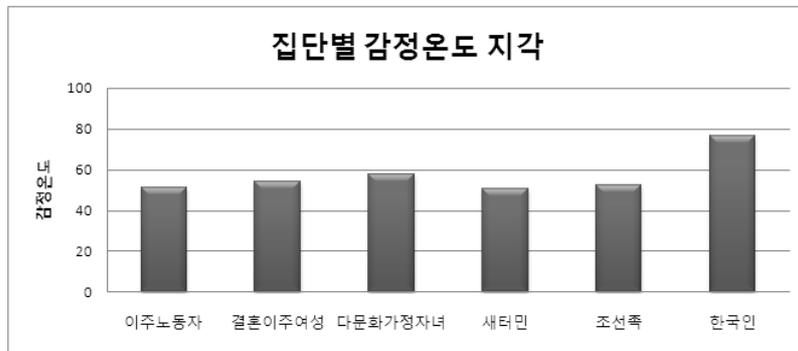
감정온도 차이에 있어 참여자 유형의 경향성 ($F(1, 1769) = 2.76, p < .10$), 소득 주효과($F(1, 1769) = 7.51, p < .01$) 및 참여자*소득의 상호작용 경향성($F(1, 1769) = 2.00, p < .10$)이 나타났다. 사회적거리감 차이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참여자*소득의 상호작용 효과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 1769) = 2.52, p < .05$). 이 두 종속측정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의 그림이 각각 그림 2와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림 2에 나타나 있듯이, 감정온도의 차이는 가계소득 500만원 이상에서 청소년의 차이가 성인의 차이보다 낮은 경향성의 결과를 제외하고는($F(1, 177) = 3.208, p < .10$) 청소년의 감정온도 차이가 성인의 감정온도 차이보다 더 크게 나타나 (150만원미만 $F(1, 1769) = 3.25, p < .15$, 150만원-300만원 $F(1, 1769)$

=6.36, $p < .05$, 300만원-400만원 $F(1,1769)=5.325$, $p < .05$, 400만원-500만원 $F(1,1769)=2.7$, $p=.10$ 다시 한번 청소년의 상대적 내집단편애가 성인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소득의 효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감정온도 차이가 높았는데, 3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집단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는데로, 사회적거리감 차이에 대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효과가 나타나, 500만원 이상의 소득 집단에 있어서만 성인이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내집단편애가 강했고($F(1,1769)=4.093$, $p < .05$), 150만원-400만원 소득

집단에 있어서는 청소년이 성인보다 더욱 큰 사회적거리감 차이를 나타냈다(150만원-300만원 $F(1,1769)=3.095$, $p < .10$, 300만원-400만원 $F(1,1769)=9.967$, $p < .01$).

각 이주민 대상 집단별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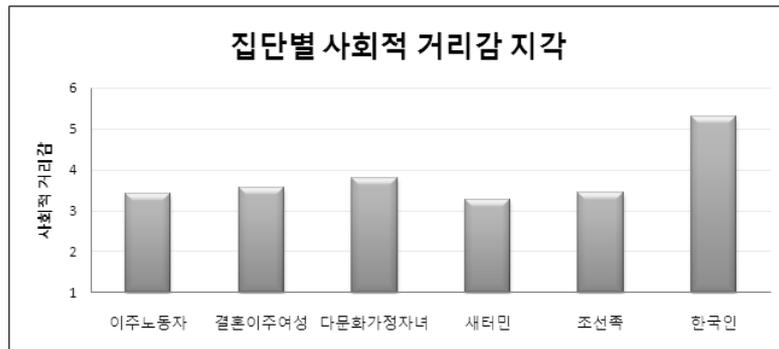
다섯 개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 신념 및 감정의 차이를 일원변량분석(집단내)과 사후비교분석(Bonferroni correction)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문제 1). 그림 4-7에 각 분석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각 대



주. 새터민 (50.38)^a, 이주노동자(50.95)^a, 조선족(52.30)^b, 결혼이주여성(54.14)^c, 다문화가정자녀(57.92)^d, 한국인(76.43)^e.

Wilks' Lambda=.33, $F(5, 1794)=721.02$, $p < .001$, Eta square=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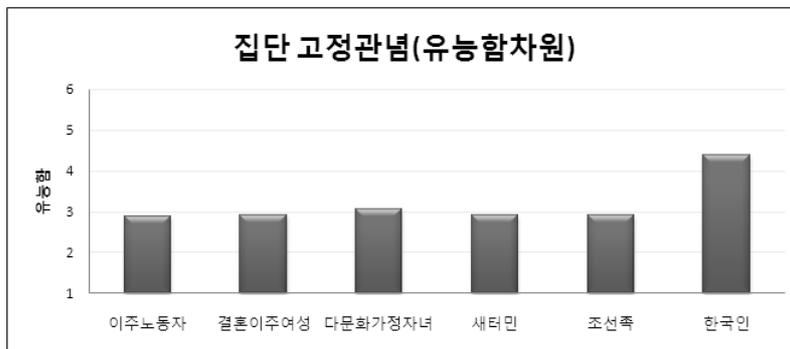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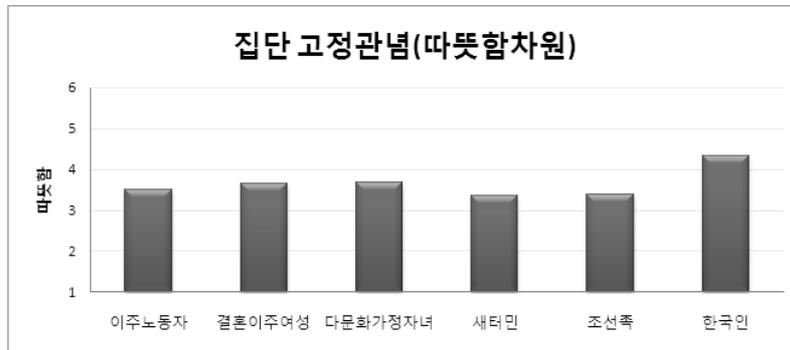
그림 4. 대상 집단에 대한 감정온도 평균



주 1. 점수가 높을수록 가깝게 지각함

2. 새터민(3.27)^a, 이주노동자(3.42)^b, 조선족(3.44)^b, 결혼이주여성(3.56)^c, 다문화가정자녀(3.81)^d, 한국인(5.29)^e. Wilks' Lambda=.251, $F(5, 1794)=1074.41$, $p < .001$, Eta square=.749

그림 5. 대상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평균



주 1. 유능함 차원: 이주노동자(2.895)_a, 결혼이주여성(2.90)_a, 새터민(2.916)_a, 조선족(2.918)_a, 다문화가정자녀(3.07)_b, 한국인(4.39)_c.

Wilks' Lambda=.422, $F(5, 1794)=493.27$, $p<.001$, Eta square=.578

2. 따뜻함 차원: 새터민(3.36)_a, 조선족(3.39)_a, 이주노동자(3.49)_b, 결혼이주여성(3.64)_c, 다문화가정자녀(3.67)_c, 한국인(4.34)_d

Wilks' Lambda=.579, $F(5, 1794)=261.56$, $p<.001$, Eta square=.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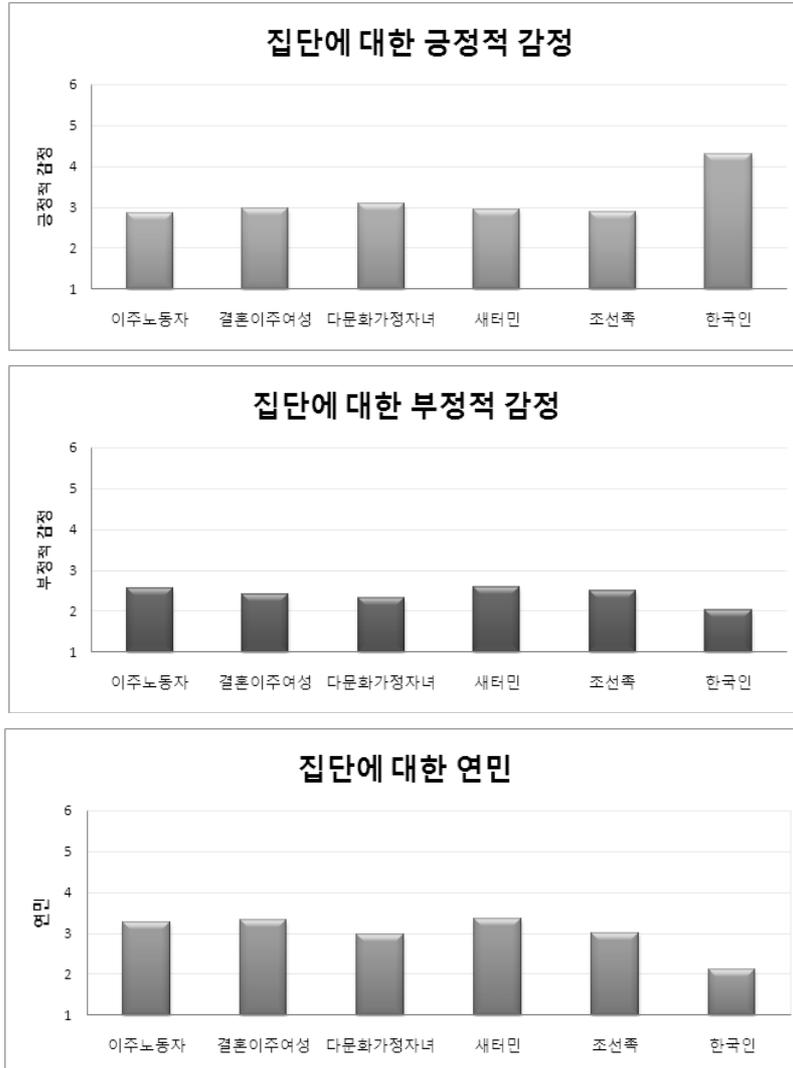
그림 6. 대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유능함, 따뜻함)

상 집단에 대한 감정온도와 사회적거리감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사람들은 뚜렷한 내집단 편애를 보였다(그림 4, 5). 또한 이들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는 중간 점수에 머물러 있거나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어서 부정적이지는 않더라도 결코 긍정적 수준이 아님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주민 집단들 중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가장 선호하였고, 그 다음 결혼이주여성, 조선족, 이주노동자의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가장 덜 선호하는 집단이 새터민이었다.

각 집단에 대한 유능성과 따뜻함 차원에서의 신념 평가도 비슷한 순서로 나타났는데, 따뜻함 평가보다

유능성 평가가 더욱 낮아서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이 '유능하지 않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그림 6).

그림 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감정 평가 점수는 중간 점수 이하(즉, 2.8-3)로 중간 정도나 중간 이상의 평가를 얻은 따뜻함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 평가에 비해 감정 차원의 평가가 더 부정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말하자면 대상 집단에 대한 신념 차원의 평가보다 감정 차원의 평가가 특히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긍정적 감정보다 조금 더 낮아서 2.3-2.6 사이에 분포되었는데 평가 순위는 다른 평가의 순위와 유사하였다. 즉,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제일 낮았



주 1. 긍정감정: 이주노동자(2.86)_a 조선족(2.87)_a 새터민(2.94)_b 결혼이주여성(2.98)_b 다문화가정자녀(3.08)_c 한국인(4.31)_d Wilks' Lambda=.614, $F(5, 1794)=226.30$, $p<.001$, Eta square=.654
 2. 부정감정: 한국인(2.04)_a 다문화가정자녀(2.31)_b 결혼이주여성(2.42)_c 조선족(2.50)_d 이주노동자(2.57)_e 새터민(2.60)_e Wilks' Lambda=.346, $F(5, 1794)=680.49$, $p<.001$, Eta square=.386
 그림 7. 대상 집단에 대한 감정(긍정감정, 부정감정, 연민)

고, 다문화가정자녀, 결혼이주여성, 조선족의 순서대로 낮았으며, 이주노동자와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제일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에 대한 연민의 감정은 다른 평가와 달리 새터민에 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 결혼이주여성이었다고, 그 다음 이주노

동자, 조선족의 순이었고 다문화가정 자녀와 한국인에 대해 가장 낮았다.

예측변인들이 사회적거리감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계적 회귀 분석

연구문제 2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이주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평균의 차이 점수(내집단-외집단)에 대해 3단계의 위계적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3).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감정온도 차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도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여기서는 사회적 거리감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1단계에서는 나이, 성, 소득수준의 인구학적 변인을 포함시켰고, 2단계에서는 각 예측변인을,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체성과 위협의 상호작용,

정체성과 접촉, 정체성과 문화적응관련 이데올로기의 상호작용, 그리고 문화적응 관련 이데올로기와 접촉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함시켰다.

주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1단계의 인구학적 변인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구학적 변인을 통제 후 2단계의 주효과와 3단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유의미한 R^2 change가 나타났다.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예상대로 한국인 집단정체성이 높을수록($B=.20, p<.01$), 다문화주의이데올로기가 낮을수록($B=-.13, p<.01$), 동화주의 신념이 높을수록($B=.08$,

표 3. 사회적거리감 차이(내집단-외집단)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전체)

단계	예측변인	B	t	F	ΔR^2
1	나이	.00	.04	1.64	.00
	성별	.05	1.97		
	소득수준	-.03	-.03		
2	집단정체성	.20	8.53***	16.34***	.10
	다문화주의	-.13	-5.23***		
	동화주의	.08	3.22**		
	보편주의	.05	1.82+		
	권위주의	.09	3.50***		
	접촉_수	.02	.78		
	접촉_빈도	-.10	-3.64***		
	정체성위협	.00	.09		
현실적 이득 위협	.06	1.82+			
3	집단정체성*정체성위협	.06	1.84+	10.90***	.02
	집단정체성*이득위협	.05	1.48		
	집단정체성*다문화주의	-.01	-.47		
	집단정체성*동화주의	-.06	-2.21*		
	집단정체성*접촉수	-.03	-1.16		
	집단정체성*접촉빈도	-.04	-1.44		
	다문화주의*접촉수	.06	1.99*		
	다문화주의*접촉빈도	.04	1.18		
	동화주의*접촉수	.05	1.72+		
동화주의*접촉빈도	-.06	-1.75+			

주. + $p<.1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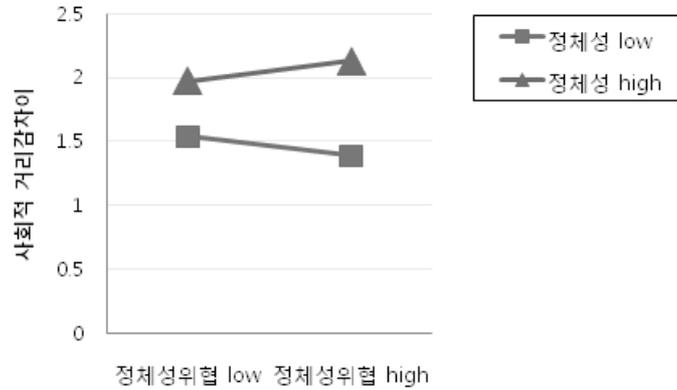


그림 8. 사회적거리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체성*정체성위협 효과

$p < .01$), 권위주의의 가치가 높을수록 ($B = .09, p < .01$), 그리고 이주민에 의한 현실적 사회위협(범죄, 실업 등) 지각이 높을수록($B = .06, p < .07$) 이주민에 대한 상대적 사회적 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 기대와 달리 보편주의의 가치가 높을수록 사회적거리감 차이가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B = .05, p < .10$). 흥미롭게도 이주민과의 접촉의 빈도만이(이주민 친구 수나 이웃 수가 아닌) 상대적 사회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도록 하였다 ($B = -.10, p < .01$).

정체성과 정체성 위협의 상호작용 효과

연구문제 2-1을 검토하기 위해 정체성과 정체성 위협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3), 정체성과 정체성 위협의 상호작용 경향성이 나타났다 ($B = .06, p < .07$). 그림 8에 나타나 있듯이, 예상대로 집단정체성이 높은 한국인에 있어 낮은 사람보다 외집단에 대한 상대적 거리가 보다 크게 나타나는 데 이는 정체성 위협을 높게 지각하는 사람에서 낮게 지각한 사람에 비해 더욱 그러하였다(정체성 위협 고 $B = .37, p > .10$; 정체성위협 저 $B = .22, p > .10$).

그러나 정체성이나 정체성과 정체성 위협의 상호작용을 불안(응답자가 각 대상에 대해 느끼는 불안 감정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이 매개하는지를 Baron과 Kenny(1986)의 분석 방법에 의해 검토한 결과 이러한 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접촉과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이데올로기의 상호작용

연구문제 2-2는 접촉의 유형이 편견에 미치는 효과와 이러한 효과를 매개하는 매개과정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먼저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상대적 부정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친구나 이웃의 수가 미치는 효과와 접촉 빈도(즉,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즉 접촉 수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부적 영향(예를 들어, 접촉 수는 감정온도의 차이를 크게 만들었음)을 미쳤는데 반해, 접촉 빈도의 효과는 보다 일관되게 편견적 태도를 줄였다.

접촉이 편견적 태도의 감소를 일으키는 효과가 접촉이 외집단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때문인지를 검토하는 매개 분석을 하였다. 그림 9에서 보듯이 불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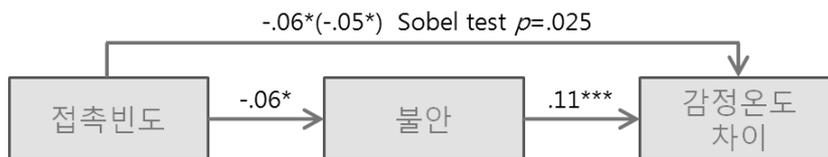


그림 9. 접촉이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불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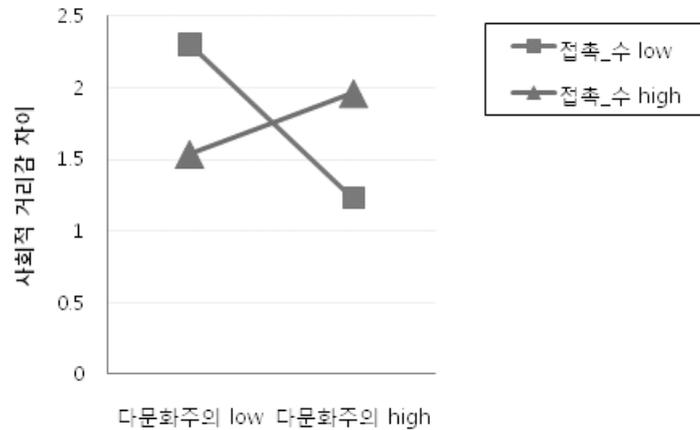


그림 10. 사회적거리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주의*접촉수 효과

접촉 빈도가 이주민에 대한 상대적 편견적 태도(즉, 감정온도) 고양 효과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결과가 나타나 (Binder 등, 2009; Pettigrew와 Tropp, 2006) 선행 연구 결과를 반복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접촉과 다문화 관련 이데올로기와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여(연구문제 2-3), 접촉을 하되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 혹은 동화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접촉하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림 10, 11 및 12에 이데올로기와 접촉의 상호작용 효과가 각각 나타나 있다. 이에서 보면, 다문화주의와 접촉 수의 상호작용 ($\beta=.06, p<.05$; 그림 10)이 유의미하였고, 동화주의와 접촉 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 경향성이 나타났다 ($\beta=.05, p<.10$; 그림 11). 또한 동화주의와 접촉 빈도 효과도 유의미 경향성을 보였다 ($\beta=.06, p<.10$; 그림 12).

그림 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의 이데올로기의 긍정적 효과(즉, 다문화주의가 높으면 사회적거리감 차이가 줄어든다; 표3 참조)는 접촉의 수가 낮을 때 그러하였고($\beta=-.54, p<.01$), 접촉의 수가 높아지면 이러한 효과가 오히려 감소하여($\beta=.21, p>.10$) 다문화주의의 신념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외집단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이 커지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동화주의와 접촉 수의 상호작용도 나타났는데 (그림 11), 이는 동화주의의 신념이 높을 때 낮은 경우와 비교해 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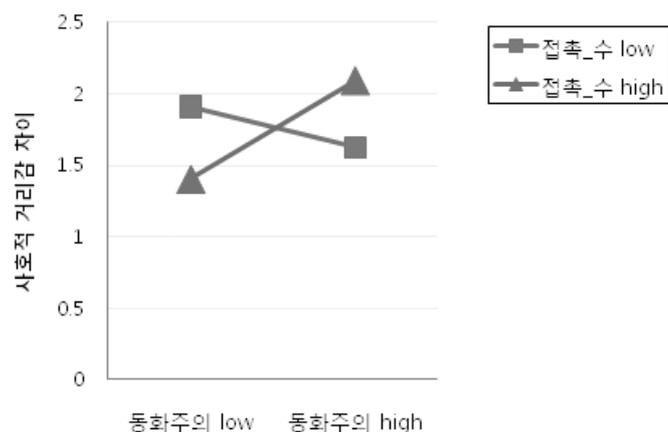


그림 11. 사회적거리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동화주의*접촉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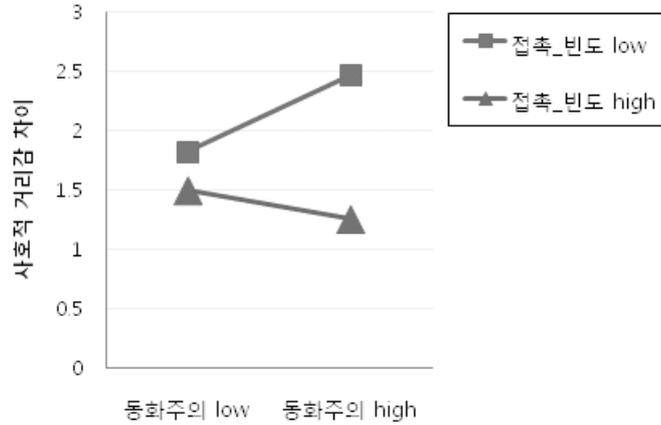


그림 12. 사회적거리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동화주의*접촉 빈도 효과

이 높아지는데 (즉, 사회적거리감 차이가 커지는데) 이러한 효과는 주로 접촉의 수가 높을 때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접촉수 고 $\beta=.34, p>.10$; 접촉수 저 $\beta=-.14, p>.10$). 그림 10와 11에 나타난 이러한 효과는 단순 접촉 수가 증가되면 오히려 다문화주의 신념의 긍정적 효과를 줄이고 한편 동화주의의 부정적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그림 12에 나타나 있듯이, 접촉의 빈도와 동화주의 신념의 상호작용은 접촉의 수의 효과와는 달리 접촉 빈도가 낮은 경우는 동화주의가 높을수록 편견이 높지만($\beta=.32, p<.05$) 접촉 빈도가 높으면 이러한 동화주의의 부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beta=-.12, p>.10$). 따라서 비록 동화주의 신념의 효과가 편견적 태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보다 긴밀한 접촉을 함께

하도록 하면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어서, 문화적응 관련 이데올로기나 가치, 접촉 혹은 이들간의 상호작용이 외집단에 대한 위협감(정체성 위협, 이득위협)을 줄임으로써 편견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지를 검토하기 위해, 사회적거리감 차이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되 두 위협 변인들을 제외하고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 매개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동화주의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가치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 위협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결과를 얻었다. 즉, 그림 13에 나타나 있듯이 동화주의 신념이 높아지면 편견이 높아지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동화주의 신념이 정체성 위협감 혹은 이득 위협감을 높이기 때문에 그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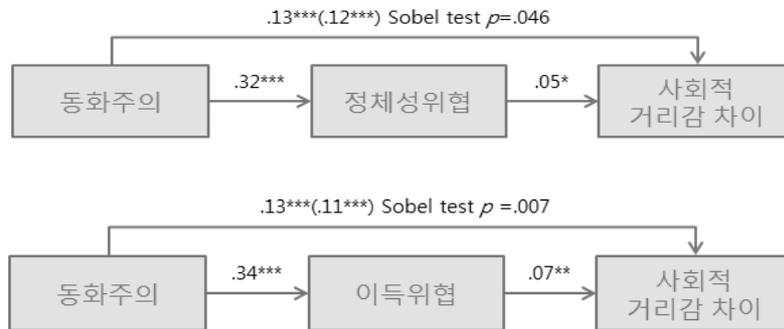


그림 13. 동화주의 이데올로기가 사회적거리감 차이를 높이는 효과를 매개하는 정체성위협과 이득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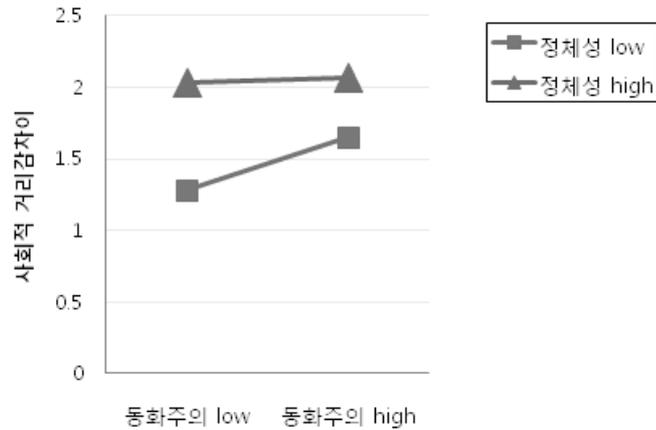


그림 14. 사회적거리감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동화주의*정체성 효과

하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에 대한 매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정체성과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이데올로기의 상호작용

연구문제 2-4에서 제기했듯이, 본 연구에서는 집단 정체성과 이데올로기와의 상호작용을 검토하였다. 그림 1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동화주의와 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Crisp와 Hewstone (2007)의 제안과는 반대로 동화주의가 높을수록 외집단에 대한 편견이 높았는데, 이는 내집단정체성이 낮은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낮은 정체성 $\beta=.19, p>.10$; 높은 정체성 $\beta=.02, p>.10$).

보편주의, 권위주의 가치와 이주민에 대한 편견

연구문제 2-5에서 제안한대로 권위주의 가치와 보편주의 가치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과 그 매개과정을 검토하기 위해 회귀분석(표3)과 매개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앞에서 기술한대로, 권위주의 가치가 높을수록 사회적거리감 차이가 커졌고, 또한 예상과는 달리 보편주의 가치도 높은 사회적 거리감을 예측하였다.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권위주의 가치가 사회적 거리감을 높이는 효과는 정체성위협과 이득위협에 의해 각각 매개되었다(그림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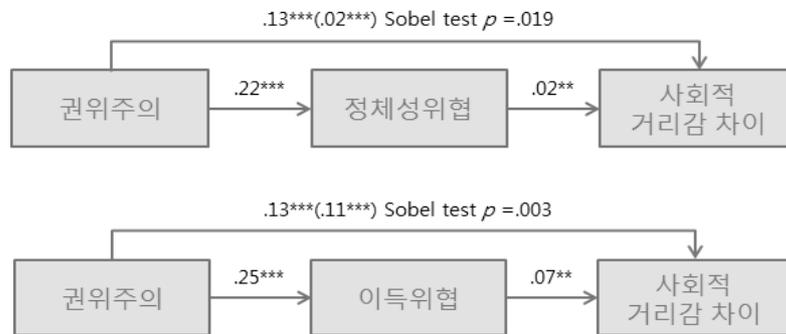


그림 15. 권위주의의 가치가 편견을 높이는 효과를 매개하는 정체성위협과 이득위협

대상 집단별 위계적 회귀분석

5개의 대상 집단별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하여 표4에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전체(즉, 5개 집단 평균)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집단정체성과 권위주의는 5개 대상 집단 모두에 대한 편견적 태도(즉, 사회적 거리감 차이)를 높였는데, 정체성의 주효과는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해서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한편 다문화주의와 접촉 빈도도 전체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다섯 개 집단 모두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낮추었다. 동화주의가 편견적 태도를 높이는 효과도 조선족에 대한 태도의 경우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 외 4개 집단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2원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효과의 유의미성에 있어 대상집단 별로 더 큰 차이를 보였는데, 그 방향성은 대체로 전체의 경우와 그리고 상호간에 일치하였다. 예를 들어, 다문화주의와 접촉수의 상호작용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집단에 대한 태도에 있어 전체와 마찬가지로 형태(그림 10)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동화주의와 접촉빈도의 상호작용도 그림 1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형태로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및 조선족에 대한 태도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집단정체성과 동화주의의 상호작용도 다문화가정자녀, 새터민 및 조선족에

표 4. 각 대상집단별 사회적거리감 차이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예측변인	전체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새터민	조선족
1	(ΔR^2)	(.00)	(.00 ⁺)	(.00)	(.00)	(.00)	(.00)
	나이	.00	-.04 ⁺	-.04 ⁺	-.03	-.03	-.03
	성별	.05	.05 ⁺	.02	.01	.04	.01
	소득수준	-.03	.01	.02	.00	.03	.01
2	(ΔR^2)	(.10 ^{**})	(.10 ^{**})	(.09 ^{**})	(.07 ^{**})	(.08 ^{**})	(.07 ^{**})
	집단정체성	.20 ^{**}	.21 ^{**}	.20 ^{**}	.12 ^{**}	.16 ^{**}	.20 ^{**}
	다문화주의	-.13 ^{**}	-.10 ^{**}	-.12 ^{**}	-.13 ^{**}	-.11 ^{**}	-.11 ^{**}
	동화주의	.08 ^{**}	.13 ^{**}	.10 ^{**}	.07 ^{**}	.05 ⁺	.02
	보편주의	.05 ⁺	.04	.00	.04	.07 ^{**}	.05 [*]
	권위주의	.09 ^{**}	.05 [*]	.07 ^{**}	.06 ⁺	.12 ^{**}	.08 ^{**}
	접촉수	.02	.04	-.01	.04	.02	.01
	접촉빈도	-.10 ^{**}	-.11 ^{**}	-.08 ^{**}	-.11 ^{**}	-.10 ^{**}	-.06 [*]
	정체성위협	.00	.02	.00	.06 ⁺	-.05	-.01
이득 위협	.06 ⁺	.03	.08 [*]	.06 ⁺	.05	.04	
3	(ΔR^2)	(.02 ^{**})	(.02 ^{**})	(.02 ^{**})	(.03 ^{**})	(.01 ^{**})	(.01 ^{**})
	집단정체성*정체성위협	.06 ⁺	.05	.05	.06 ⁺	.04	.06 ⁺
	집단정체성*이득위협	.05	.01	.03	.09 ^{**}	.06 ⁺	.02
	집단정체성*다문화주의	-.01	-.04 ⁺	-.01	-.02	.02	.01
	집단정체성*동화주의	-.06 [*]	-.01	-.04	-.09 ^{**}	-.06 [*]	-.04 ⁺
	집단정체성*접촉수	-.03	-.03	-.04	-.04	-.01	-.02
	집단정체성*접촉빈도	-.04	-.03	-.04	-.04	-.03	-.03
	다문화주의*접촉수	.06 [*]	.07 [*]	.08 ^{**}	.03	.05	.03
	다문화주의*접촉빈도	.04	.01	.03	.04	.03	.06 ⁺
	동화주의*접촉수	.05 ⁺	.03	.06 [*]	.05	.04	.05
동화주의*접촉빈도	-.06 ⁺	-.01	-.08 [*]	-.06 ⁺	-.05	-.06 ⁺	

주. ⁺p<.10, ^{*}p<.05, ^{**}p<.01

대한 태도에 있어서 전체(그림 14)의 경우와 비슷한 형태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정체성과 정체성 위협의 상호작용 효과가 (즉, 집단정체성이 편견을 높이는 효과가 정체성 위협감을 보다 높게 지각하는 사람에 있어 보다 크게 나타남) 다문화가정 자녀와 조선족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한국 사람들과 혈통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이와 비슷하게, 다문화가정 자녀와 새터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정체성이 높은 사람에 있어서는 이득위협이 커질수록 더욱 편견이 커졌는데, 집단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민들에 대해 나타내는 상대적 내집단 편애 혹은 편견의 정도가 상당한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감정적 차원의 문제가 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주민에 대한 감정 차원의 평가가 특히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이러한 결과는, 편견의 감정적 측면이 고정관념적 측면보다 그 집단에 속한 개인에 대한 평가나 차별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들(Dovidio, Brigham, Johnson & Gaertner, 1996; Haddock, Zanna & Essess, 1993, 1994; Jussim, Nelson, Manis & Soffin, 1995; Stangor, Sullivan & Ford, 1991; Stephan, Ageyev, Coates-Shrider, Stephan & Abalakina, 1994)로 미루어 볼 때, 이주민들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이들 이주민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의 강도는 대상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다문화가정자녀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평가가 일관되게 제일 높았고, 조선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그 다음의 순이었으며 이주노동자나 새터민에 대한 평가가 제일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이 북한 사람, 북한, 북한 여성 혹은 북한 남성(즉, 대상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전우영, 조은경

(200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이주민에 대한 연구와 그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세밀하게 대상 집단 별로 다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준다.

태도 평가 결과의 의외의 측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터민에 대해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만큼 부정적 태도와 감정 및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결혼’ ‘세주기’ 및 ‘친구삼기’ 등 일상생활의 주요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새터민에 대한 평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평가보다 더 낮았다. 그러나 한편 연민의 감정(그림 7)에 있어서는 새터민에 대한 감정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새터민에 대한 태도나 감정이 단순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새터민에 대한 부정적이면서 양가감정적 태도는 실상 이전의 연구(김혜숙 등, 2005; 김혜숙, 2007)에서도 나타났다. 즉, 이 선행 연구들에서도 우리나라 성인들은 새터민에 대한 호감도나 신뢰성 평가에 있어 동남아 이주민에 대해서와 비슷한 정도로 낮았으나, 한편 ‘따뜻함’ 특성에 대한 군집분석에 의하면 탈북자(즉, 새터민)와 이혼녀 집단이 이주노동자, 장애인 집단보다 덜 따뜻한 집단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한편 ‘자녀와 결혼’에 얼마나 찬성하는 가를 묻는 사회적 거리감 측정에 있어서는 새터민이 동남아시아노동자보다 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남한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 새터민에 대해 일면 이주노동자집단에 대해서만큼 부정적이거나 혹은 더욱 부정적일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복합적일 수 있는데, 새터민이 남한 사람과 동일 민족이므로 그만큼 더 심리적·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새터민을 가족을 버리거나 이탈해 온 사람으로 보는 시각 때문일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중의 하나는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에 있어 성인에 있어서보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감정, 신념 및 태도 (즉, 감정온도, 사회적거리감, 고정관념, 긍정 감정 및 다문화정책 동의)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까지 이주민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김이선 등, 2007; 황정미 등, 2007)나 우리나라 소수 집단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김혜숙, 2007)에서 20대가 40대 혹은 50대에 비해 편견적 태도를 덜 나타냈다는 결과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과 성인(즉 20대 이상)들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조사하였으므로 20대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던 선행 연구들과는 응답자들이 다르다. 선행 연구중 양계민이 이주민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의 태도(2009)와 성인의 태도(2010)를 따로 조사하였으나 이 둘을 직접 비교하지 않아 성인과 비교한 청소년들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 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 즉, 이러한 결과는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으로, 이주민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 통합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성인에 비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강하다는 결과는 실험 연구에서는 일면 밝힌 바 있다. 즉, 노경란, 방희정(2009)은 초등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백인, 동남아인 및 흑인에 대한 명시적 암묵적 태도를 실험 연구를 통해 측정하였는데,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적어도 명시적으로는 외집단에 대한 더 높은 편견을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본 연구의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다문화주의 신념이 더 높았고, 동화주의 신념은 더 낮았으며, 정체성위협도 더 낮아서, 다문화관련 신념이나 정체성위협 등 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있어 성인보다 더 긍정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왜 청소년이 성인들보다 이주민에 대해 더 강한 편견적 태도를 보였는가에 대해 현재로서는 확실히 설명하기 어려우나, 하나의 가능성은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의 특성상 보다 경직되게 내집단편애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평가우려가 더 낮아 솔직하게 답변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혹은 청소년들이 다문화주의 신념을 성인들보다 더 지지하고 동화주의 신념을 덜 지지하므로 추상적 수준에서는 더 개방적 신념을 가지나,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 의사를 측정하는 사회적거리감 등의 보다 구체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부정적 감정에 의거하여 응답한 결과일 수 있다. 편견적 태도가 결국 학교 교육이나 가정의 교육 등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사회의 규범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러한 결과는 다양성 존중이나 개방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편견 감소나 다양성 수용을 진작하기 위한 좀 더 장기적이고 전향적인 교육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성인 응답자는 가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낮아졌는데 300만원 이하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편견이 낮아졌지만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소득에 따라 그다지 달라지지 않거나 약간 올라갔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다 선형적으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편견이 낮아 졌다. 즉, 소득의 영향은 청소년과 성인에 있어 500만원 이하까지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편견이 줄어들었지만 500만원 이상 수입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편견점수는 많이 낮아졌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약간 증가하였다. 그 결과 500만원 이하의 가계수입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편견이 성인보다 높았지만 500만원 이상의 가계수입의 경우에는 성인의 편견이 청소년의 편견 수준보다 더 높았다. 20세 이상의 성인에 있어 소득이 높을수록 이주민에 대한 편견이 낮아지는 현상은 다른 연구들에서 수입이 높을수록 (500만원까지) 종족배제주의가 낮아졌다는 결과(황정미 등, 2007)와, 그리고 수입이 높을수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거리감이 낮아졌다는 (즉, 더 친밀감이 증가했다는) 양계민(2010)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가계수입과 편견적 태도의 부적 상관은 소득과 학력의 정적 상관에 기인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의 경우에도 가정의 수입이 높아질수록 내집단에 비한 상대적 감정온도나 사회적거리감이 낮아졌는데, 가계수입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편견적 태도가 다소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최상위 수준의 수입 수준에서는 오히려 청소년의 편견이 성인의 편견적 태도보다 더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성인에 있어 높은 가계수입은 나이와 정적 상관이 있어서 이로 인해 높아진 보수적 태도가 소득 혹은 학력의 효과를 희석시키는 데 반해서, 청소년에 있어서는 가정의 가계수준과 청소년의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는 데에 기인될 수 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편견이 더 높았다는 사실은 현실적 갈등 이론을 지지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 이론이 제안하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민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이 높아질수록 더욱 높아졌음을 밝혔다. 즉, 한국인으로서의 집단정체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집단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한국인에 대해서보다 더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정체성의 주효과는 다른 어떤 예측변인들(즉, 이데올로기, 가치, 접촉 및 현실적 위협)보다도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이는 또한 5개의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해 각각의 분석을 수행했을 때에도 안정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체 이론이 제안하는 대로 집단동일시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내집단을 더욱 편애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우리나라 남성들의 사회정체성이 높아질수록 양성평등 행동을 덜 나타냈다고 보고한 김금미 등(200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집단정체성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높이는 경향은 특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즉, 고유 민족 문화와 민족 고유성에 대한 위협)이 위협받을 때 더욱 그러하였음을 보여 주었다(그림 8). 한편 현실적 갈등 지각도 편견 태도와 정적으로 상관을 보이는 경향성이 나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주민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현실적 위협감에 의해 영향받는다라는 것을 보인 양계민(2009, 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양계민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달리 사회정체성은 이주민에 대한 청소년 혹은 성인의 태도를 그다지 강하게 예측해 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의 자료에 대해 성인 자료와 분리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했을 때도 전체 응답자 자료를 사용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정도로 집단정체성이 사회적거리감 차이를 예측하였다. 또한 이러한 괴리가 나타난 이유는 측정의 차이(예를 들어, 양계민의 연구는 한국인에 대한 태도 측정을 포함하지 않았다) 분석의 차이 혹은 대상연령의 차이 등(즉, 양계민(2009)에서는 초등학교생을 포함시켰음)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태도와 비교한 이주민에 대한 상대적 부정적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이에겐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개입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체성은 정체성위협과 상호작용하여 편견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었다.

각 대상 집단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도 전체

(평균)에 대한 분석과 비슷하게 정체성, 다문화주의와 접촉빈도의 사회적거리감 차이에 대한 부정 효과 그리고 동화주의와 권위주의가 편견을 높이는 정적 효과가 각 대상집단에 대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호작용 결과는 전체에 대해서보다 대체로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에서 볼 때 흥미로운 결과는 집단정체성이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높이는 효과는 역시 남한사람들의 혈통이 섞인 다문화가정자녀에 대해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가정자녀가 외집단이지만 한편으로는 내집단으로 범주화되기도 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주민으로 인해 정체성이 위협받다고 지각하면 편견이 가장 높아지는 효과는 오히려 다문화가정자녀나 조선족과 같이 혈통이 섞인 대상집단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다문화가정자녀나 조선족이 남한 사람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결혼 등을 통해 오히려 가장 잘 섞이기 쉽고, 그에 따라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더욱 위협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배타적 집단정체성에 기반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따라서 다문화 교육을 함에 있어 좀더 개방적인 정체성을 함양시키고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이는 확장된 자기 개념(extended self; Aron & Aron, 1996; Wright, Aron, McLaughlin-Volpe & Ropp, 1997)과 자기확장 동기(Leary, 2007)를 고양시켜 외집단을 자신 혹은 자신의 집단의 개념 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편견 감소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연구들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Crocker와 Park (2004)가 현대인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므로 인간관계의 문제 등 오히려 부적응을 겪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의 대안으로 자신의 개념안에 타인을 포함시켜 생각하는 노력을 제안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확장은 물론 개인적인 정체성 차원의 확장이었고, 사회정체 이론 혹은 Berry(2003)는 집단 정체성 차원의 확장-이중 정체성-을 제안한다. 즉, 다문화 사회에서 사회의 통합과 개인의 적응을 위해서는 다수집단의 정체성을 보다 확장하여 자신의 원래 집단에의 동일시뿐만 아니라 외

집단 혹은 그 둘을 모두 포함하는 더 큰 집단에의 동일시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문화적응전략 혹은 이데올로기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 주었다: 예상대로 다문화주의 신념은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부정적으로 예언해 주고 한편 높은 동화주의 신념은 보다 더 높은 편견적 태도와 관련되었다. 이러한 본 조사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황지현, 김동진, 김혜숙, 2009; Verkuyten, 2005)에서 밝힌 바대로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 지지가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감소시키는 반면, 동화주의 이데올로기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오히려 편견적 태도를 강화시킬 수 있음을 재확인해 주었다(Verkuyten, 2005). 사회정체 이론에 의하면 다수 집단의 다문화주의 신념 지지는 결국 한 사회내 다양한 인종집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규범을 지지하고 또한 이중정체 (예를 들어, “나는 한국사람이자 아시아인이다”)를 가지는 것과 연관된다. 한편 동화주의는 다수 집단이 자신의 집단의 규범과 문화를 표준으로 간주하여 이주민이 이에 동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신념(즉, 용광로정책, melting pot)이고, 공동내집단(“우리는 모두 한국인”) 정체를 가지는 경우를 지칭한다. Brown과 Hewstone (2005) 그리고 Gaertner 등 (1989, 1990) 은 다수집단이 동화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한집단’으로 범주화하게 되는 것이므로 외집단에 대한 편견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다수 집단이 다문화주의를 지지할수록 외집단에 대한 태도가 좋아지고 반면 동화주의를 지지할수록 외집단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고 보고한 Verkuyten(2005), 혹은 황지현 등 (2009)과 괴리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Verkuyten과 황지현 등(2009)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어 다양한 문화 집단의 상호인정과 존중, 그리고 이중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이주민에 대한 낮은 편견과 관련되고 한편 자신의 집단에 동화 흡수되는 것이 좋다는 신념을 지지하는 것은 더 큰 편견과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동화주의보다는 다문화주의가 외집단과의 친밀한 관계를 보다 추구하는 문화적응 신념이라고 보는 Berry의 입장과 이를 지지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최근 들어 자신들의 공동내집단 모형을 수정하

여 이에는 기존의 ‘한집단 범주화’뿐만 아니라 ‘이중정체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중정체가 편견감소를 위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 Dovidio와 Gaertner (2010)의 주장과 일치한다. Dovidio와 Gaertner (2010)는 ‘한집단 범주화’가 외집단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주어 편견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집단 독특성 추구 동기를 위협(즉, 정체성 위협)함으로써 오히려 편견과 배타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중정체는 이러한 위협을 없애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동화주의 신념이 편견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동화주의 신념이 정체성위협과 이득위협을 높이기 때문이라는 매개 분석 결과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였다. 한편 이러한 결과의 현실적 의미로는 우리 사회 일상적 편견의 감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통합에 대한 신념을 특성으로 하는 ‘진정한’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사회의 규범으로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또한 다수 집단 사람들이 보다 통합적 정체성이나 이중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정체성 확장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해 진다는 것을 제안한다.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실적 갈등 이론이 주장하는 바대로, 또한 양계민(2009, 2010)이 우리나라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밝힌 바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주민이 자신들의 현실적 이득을 위협한다고 지각할수록 사회적 거리감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범위를 증가시킨다고 지각하거나 혹은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지각하는 현실적 위협이 편견을 높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대로 (김혜숙, 2007) 권위주의 가치가 이주민에 대한 상대적 부정적 태도를 높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에서 더 나아가 권위주의 가치가 편견을 높이는 이유는 이러한 가치가 높은 사람들이 외집단에 대해 더 높은 이득위협감과 정체성위협감을 지각하기 때문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다르게 평등, 사회정의 등을 소중히 여기는 보편주의 가치를 높게 가질수록 이주민에 대한 상대적 거리감(즉, 내집단-외집단)이 커졌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가 왜 나타났는지

는 현재로서는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외집단 감정 온도($\beta=.15$, $p<.01$)와 외집단 사회적 거리감($\beta=.19$, $p<.01$)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보편주의 점수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데 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본 조사에서 보편주의 가치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항상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보편주의 가치는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한편 내집단에 대한 평가에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상대적 내집단 편애 혹은 외집단 비하에 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요한 결과 중의 하나는 이주민과의 접촉의 효과이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주민 중 아는 사람이나 친구의 수(접촉수)가 거의 없고 또한 만나는 빈도(접촉빈도)도 거의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이지만 접촉 수와 빈도의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접촉 빈도만이 이주민 외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와 부적으로 연관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접촉의 수와 접촉의 빈도를 모두 접촉의 양으로 간주하고 ‘친밀한’ 접촉의 정도를 접촉의 질로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접촉의 질이 편견 감소에 더 큰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Binder 등, 2009).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의 한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가지는 사회적거리감이 이주외국인과 함께 일한 기간에 의해 달라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오계택 등, 2007)와도 괴리가 있다. 그러나 오계택 등의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와 일한 기간만 측정을 하였고 그 접촉의 양, 빈도 혹은 친밀함의 정도 등은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오계택 등과 유사하게 이주외국인 고용회사에 근무하는 한국인 자료를 일반 국민의 태도와 비교 분석하되 접촉의 다양한 형태와 태도와 관계를 분석한 김이선 등(2007)의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와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한다든지’,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이 있다든지’와 같은 보다 친밀한 접촉은 종족적 배제주의를 낮춘다는 결과를 얻어 친밀한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낮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과 보다 빈번하게 만나

는 사람들이 이주민에 대해 보다 낮은 편견을 가졌다는 결과를 얻어, 접촉 양 중에도 단순한 ‘친구나 아는 사람의 수’와 같은 피상적 접촉의 측면보다는 ‘외집단과 만나는 횟수’등의 보다 친밀한 접촉이 편견 감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보다 높은 접촉 빈도가 편견을 감소시키는 이유는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 집단간 접촉에서 오는 불안의 감정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얻어 기존의 연구 결과들(Binder 등, 2009; Pettigrew & Tropp, 2006)을 지지한다. 그러나 한편 본 연구 결과는 접촉이 편견을 감소시키는 과정이 집단정체성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일부 관련 연구자들(Pettigrew, Christ, Wagner & Stelmacher, 2007; Tausch, Hewstone, Kenworthy, Cairns & Christ, 2007)의 주장 - 즉 집단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에 있어서 접촉의 긍정적 효과는 접촉이 집단적 위협(이득 위협 혹은 정체성 위협)을 줄이기 때문에 나타나고, 한편 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에 있어 접촉의 긍정적 효과는 외집단을 접촉할 때의 불안을 줄이기 때문이다 - 을 지지하지 않았다. 즉, 접촉이 편견을 줄이는 효과는 정체성에 상관없이 집단간 불안을 낮추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반복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결과는, 앞에서 논의한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효과가 접촉 수 혹은 빈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과이다. 즉, 다문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이 편견적 태도를 줄일 수 있지만, 접촉 수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 효과가 감소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동화주의 신념이 높으면 편견이 높아지는데 이 효과는 접촉 수가 높아지면 더욱 강화되었지만 접촉수가 낮으면 이러한 부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주의 신념이 편견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접촉 수가 작은 경우에 한해서 그러하고 한편 동화주의 신념 지지의 부적 효과는 접촉 수가 많을수록 상승효과를 일으켰다. 이와는 반대로 동화주의 신념 지지가 편견 감소에 일으키는 부정적 효과는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동화주의 이데올로기 신봉과 피상적 접촉의 수의 증가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

으며 편견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다른 한편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 동화주의의 부적 효과를 완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다문화주의 신념의 지지가 편견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주로 아는 외국인의 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경우에 국한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즉,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신념을 가지면서 이주민을 피상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오히려 접촉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긍정적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동화주의 신념을 가지면서(혹은 공동내집단 정체성을 가지면서) 이주민을 피상적으로 접촉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내집단 편에 혹은 상대적 외집단 비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체 이론이 주장한 바 있는 집단정체성의 확장 혹은 보다 개방적 다문화화 관련 신념이 편견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접촉의 유형에 의해 조절되고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다수 집단 중심의 정체성 혹은 동화주의 신념의 부적 효과는 오히려 이주민들을 피상적으로 더 많이 접촉함으로써 확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한편 동화주의 신념의 부적 효과는 접촉 빈도를 높임으로써 제한될 수도 있다. 혹은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접촉이 피상적 접촉의 수준에서 이루어 지는가 혹은 보다 친밀하고 심층적인 접촉이 되는가에 따라 다수 집단의 정체성이 더욱 확대될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더욱 편협해 질 수도 있으며 그 결과 편견적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제까지 관련 학계에서 검토된 바 없는 결과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그 효과뿐만 아니라 매개 과정(예를 들어, 접촉의 친밀성에 따라 다수 집단의 정체성이 확대됨으로써 편견이 감소하는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사회에서 외집단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적 태도와 부정적 감정이 문화적응 관련 신념과 접촉의 양과 질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줌으로써, 접촉을 증가시켜 이주민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 이러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인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관련 신념의 효과가 집단정체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지를 검토한 결과 동화주의 신념이 편견을 높이는 효과는 정체성이 높은 경우보다는 정체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나타났다. 즉, 동화주의 신념이 낮은 경우에는 정체성이 높으면 낮은 경우보다 편견적 태도가 높았지만 동화주의 신념이 높은 경우에는 정체성이 낮은 사람에 있어서도 편견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앞에서 개관대로 Crisp와 Hewstone (2007)은 다수 집단 사람들에 있어 외집단이 자신들의 집단에 동화되어 ‘한집단’으로 되는 것을 지지하는 동화주의 신념을 가지거나 혹은 공동내집단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집단정체성이 높은 사람들에 있어서 자신들의 집단의 지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협감을 지각하게 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우월한 집단이 자신들보다 지위가 낮은 외집단과 더 이상 구분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위협감을 초래하여 오히려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하거나 혹은 편견적 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동화주의 신념의 증가는 집단정체성이 낮은 사람에 있어서만 편견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동화주의 신념의 효과가 집단정체성이 낮은 사람에 있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그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 정체성이 낮은 경우 동화주의 신념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편견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정체성이 높은 사람에 있어서는 동화주의에 의해 편견적 태도가 그다지 달라지지 않았다. 즉, 본 연구 결과는 집단정체성과 동화주의 신념의 지지가 각각 편견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마도 집단정체성이 높은 사람은 이미 정체성위협을 높게 지각하고 그에 따라 편견이 높아져 있어 ‘한집단’ 범주화의 부각이 추가의 편견 증가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집단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주민을 ‘한집단’으로 포함시키자는 신념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정체성 위협감이나 이득위협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일으켜서 편견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혹은 정체성이 낮은 사람들에 있어서 동화주의 신념이 높아지는 것은 오히려 우월감을 높여 편견이 높아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그 효과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다. 예를 들어 회귀분석 결과와 접촉빈도 효과를 불안이 매개하는 효과 크기가 유의미했지만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예측변인들의 효과가 일상생활의 편견(감소)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 정체성, 가치 및 접촉 등의 효과의 크기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이와 같이 작은 효과로 나타났다(김혜숙, 2002, 2007). 이러한 결과는 편견이나 정체성, 가치, 이데올로기 등의 효과는 보다 미세한 심리적 영향력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주민에 대한 편견적 태도는 그 사회적·현실적 의미와 영향력이 매우 심각할 수 있는 영역이고 따라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효과 크기도 그 사회적·현실적 의미와 영향력은 중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관련 신념의 효과 중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의 효과를 다루었지만 분리주의나 배척(배제)주의의 효과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사회정체 이론에서 제안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체성의 유형-이중정체, 공동내집단 정체, 하위집단 정체 및 탈범주화-을 직접 측정하지는 않아 외집단을 접촉할 때 과연 어떠한 정체성 유형이 보다 탈 편견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사회정체 이론은 또한 이러한 범주화 혹은 정체성 유형의 효과는 다양한 매개 과정을 통해 편견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Gonzalez & Brown, 2006). 즉, 집단간 접촉에서 오는 불안, 집단의 해체에 대한 두려움(즉, 정체성 위협), 집단의 구분(differentiation) 혹은 독특성(distinctiveness)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다수집단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 집단정체성 확대 혹은 상승 욕구 혹은 통합시 내집단의 문화나 규범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 등이 서로 다른 정체성 유형이 편견 감소를 일으키는 효과를 매개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점을 본 연구에서는 일부만 다루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수 집단과 이주민 집단이 가지는 정체성을 보다 세밀하게 측정하고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 유형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매개되어 나타나는지를 좀 더 직

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문화적응 신념, 정체성 및 접촉이 각각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각각의 예측 변인들의 효과를 보다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변인들간의 관계를 구조화하고 이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주민들의 정체성, 문화적응 신념 및 접촉이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대한 태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장면에서 서로 다른 정체성과 문화적응 형태(예를 들어, 통합정체성, 동화정체성, 혹은 분리주의)를 보이는 이주민 혹은 한국인을 접할 때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고 인상을 형성하며, 또한 이러한 접촉의 경험이 외집단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그러한 과정을 매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자의 연구는, 다문화주의 신념 혹은 동화주의 신념을 읽게 하고 그에 따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검토한 기존의 연구 방식과 달리, 일상생활에서 분리주의, 동화주의 혹은 통합(이중) 정체와 행동을 보이는 이주민을 접촉할 때 그를 얼마나 내집단으로 인식하게 되는가 혹은 얼마나 정체성의 위협감 혹은 이득 위협감을 느끼게 되는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이주민 집단 일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 방식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보다 일상생활에서의 이주민과의 접촉 상황을 재현하여 그러한 경험이 얼마나 정체성의 변화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사람들이 이주민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내집단 편애 혹은 상대적 외집단 비하의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며, 특히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더욱 강한 편견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또한 인지적 측면보다는 감정적 차원의 편견이 보다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 제대로 적응

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보다 개방적 집단정체성, 다문화주의 신념의 강화, 이중정체성 인식의 고양, 권위주의 가치의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주민과의 보다 빈번하고 친밀한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집단 범주에 의거한 편견적 태도가 어렸을 적부터 사회로부터, 또 가정으로부터의 잘못된 사회화 과정에 의하여 거의 자동화된 과정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수정과 변화가 어려울 수 있다면, 동일한 이유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비합리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일 수 있다. 즉, 장기적이고 더딜지언정 어렸을 때부터의 사회화와 사회규범 학습을 통하여 보다 습관화되고 자동적인 비편견 태도와 정체성 확장 및 다양성 수용 인식을 학습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체성 확장 훈련, 다문화주의 신념, 감정 및 가치의 학습, 그리고 긴밀한 접촉 경험을 강화시키는 교육 정책이 필수적이다. 노경란, 방희정(2009)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성 수용 인식을 학습하도록 하고, 아울러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 놀며 협동하는 한국 아동의 모습 및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곤궁과 어려움 등을 그린 비디오테이프를 보여준 결과, 외국인(즉, 흑인)에 대한 태도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사례나 혹은 보다 체계적인 다문화 교과프로그램의 개발 (오은순, 김민정, 홍선주 및 안지혜, 2008)을 위한 연구 사례 등이 이러한 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적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정체성의 확장을 위한 훈련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사회규범의 인식을 위한 훈련, 가치 교육 혹은 이주민에 대한 불안이나 위협감 등의 감정적 측면을 완화시키는 훈련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정교한 심리학적 연구 결과에 근거한 다문화교육 교과목과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의 예에서처럼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다문화 인식증진' 교과목을 개발하여 교육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장기적이며 다양한 방법의 연구들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금미, 한덕웅, 한영석(2003). 남성의 성별관계 인식과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31-47.
- 김금미, 한영석(2002). 여성의 합법성, 안정성 및 성별사회정체성이 양성평등신념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7(3), 1-20.
- 김이선, 김민정, 한건수(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김혜숙(1994). 한국집단지아존중척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1), 103-116.
- 김혜숙(2002). 대학생들이 중요시하는 가치와 북한 사람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 35-50.
- 김혜숙(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김혜숙, 고재홍, 안미영, 안상수, 이선이, 최인철(2003). 다수 집단과 소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 김혜숙, 오승섭(1999). 북한사람에 대한 대학생과 일반인의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의 비교. 심리과학, 8(1), 1-22.
- 노경란, 방희정(2008). 한국 대학생과 국내 체류 외국 대학생간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75-92.
- 노경란, 방희정(2009). 다문화시대 한국 초등학교 학생의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발달과 태도변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49-79.
- 매일경제신문(2010, 1,1). 외국인의 한국생활 애로사항.
- 박군석, 한덕웅(2003). 영호남인의 사회구조 요인 지각과 사회정체성이 상대박탈과 집합전략에 미치는

-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59-72.
- 박수미, 정기선, 김혜숙, 박건(2004). 차별에 대한 국민 의식 및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주희, 정진경(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설동훈(1992). 국제노동력 이동과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7, 231-325.
- 설동훈(1998).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회. 서울대학교 출판부.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전우영, 조은경(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2004). 집단의 지위, 정당성 및 안정성의 구조적 측면에 대한 지각이 차별 경험에 미치는 영향: 성별 집단과 지역 집단의 경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107-135.
- 양계민(2009). 국내 소수 집단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 59-79.
- 양계민(2010). 현실갈등인식과 지각된 경제수준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1), 111-128.
- 양애경, 이선주, 최훈석, 김선화, 정혁(2007).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오계택, 이정환, 이규용(2007).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일터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은순, 김민정, 홍선주, 안지혜(2008). 다문화 교육을 위한 범교과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진경, 양계민(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 101-136.
- 조정아, 임순희, 정진경(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통계청(2010). 가계동향자료.
- 홍달아기, 채윤희(2007). 국제결혼부부의 가치관 및 의사소통유형과 갈등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6(4), 733-744.
- 황정미, 김이선, 이명진, 최현, 이동주(2007). 한국사회의 다민족·다문화 지향성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황지현, 김돈진, 김혜숙(2009). 다문화주의 및 동화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설득 메시지가 동남아시아 이주민에 대한 명시적·암묵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2009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초록집.
- Amir, Y. & Ben-Ari, R. (1989) Enhancing intergroup relations in Israel: a differential approach. *Stereotyping and Prejudice: Changing Conceptions*, pp. 243-257. New York: Springer.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Aron, A., Aron, E.N. (1996) *Self and self-expansion in relationships*, New York: Academic Press.
- Baron, R.M., & Kenny, D.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erry, J. W. (1984). Cultural relations in plural societies: Alternatives to segregation and their sociopsychological implications. In N. Miller & M. Brewer (Eds.), *Groups in contact*. New York: Academic Press.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 615-631.
- Berry, J. W. (2003).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M. Chun, P.B.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erry, J. W. (2006). Mutual attitudes among immigrants and ethnocultural group i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0, 719-734.

- Binder, J., Zagefka, H., Brown, R., Funke, F., Kessler, T., Amelie, M., Maquil, A., Demoulin S., Leyens, J.P. (2009). Does contact reduce prejudice or does prejudice reduce contact? A longitudinal test of the contact hypothesis among majority and minority groups in three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 843-856.
- Bogardus, E. S. (1925). Measuring social distances. *Journal of Applied Sociology, 9*, 299-308.
- Brewer, M. B. (2000). Superordinate goals versus superordinate identity as bases of intergroup cooperation. In D. Capozza & R. Brown (Eds.), *Social identity processes: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pp. 117-132). Thousand Oaks, CA: Sage.
- Brewer, M. B., & Miller, N. (1984). Beyond the contact hypothesis: Theoretical perspectives on desegregation. In N. Miller & M. B. Brewer (Ed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pp. 281-302). Orlando, FL: Academic Press.
- Brown, R., & Hewstone, M. (2005).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tact. In M.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37, pp. 255-343.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Cook, S. W. (1984). Cooperative interaction in multi-ethnic contexts. In N. Miller & M. Brewer (Eds.), *Groups in contact: The psychology of desegregation* (pp. 156-186). New York: Academic Press.
- Crisp, R., & Hewstone, M. (2007). Multiple Social Categoriza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 163-254.
- Crocker, J., & Luhtanen, S. R. (1990). Collective self-esteem and in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0-67.
- Crocker, J., & Park, L. E.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 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 392-414.
- Dovidio, J. F., Brigham, J. C., Johnson, B. T., & Gaertner, S. L. (1996). Stereotyping,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nother look. In N. Macrae, C. Stangor, & M. Hewstone (Eds.),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pp. 276-319). New York: Guilford.
- Dovidio, J. F. & Gaertner, S. L. (2010). A Common Ingroup Identity: A categorization-based approach for reducing intergroup bias. In T. Nelson (Ed.), *Handbook of prejudice* (pp. 489-506). Philadelphia, PA: Taylor & Francis.
- Dovidio, J. F., Gaertner, S.L., & Saguy, T. (2007). Another view of "we": Majority and minority group perspectives on a common ingroup identit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8*, 296-330.
- Ellemers, N., van Knippenberg, A., & Wilke, H. (1990). The influence of permeability of group boundaries and stability of group status on strategies of individual mobility and social chang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9*, 233-246.
- Ellemers, N., Wilke, H., & van Knippenberg, A. (1993). Effects of the legitimacy of low group or individual status on individual and collective status-enhancement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766-778.
- Ellemers, N., Doosje, B. J., van Knippenberg, A., & Wilke, H. (1992). Status protection in high status minority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2*, 123-140.
- Fiske, S. T., Cuddy, A. J., Glick, P., & Xu, J. (2002). A model of (often mixed) stereotype content: Competence and warmth respectively follow from perceived status and compet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878-902.
- Fredrickson, G. M. (1999). Models of American

- ethnic relations: A historical perspective. In D. A. Prentice & D. T. Miller (Eds.), *Cultural divides: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group conflict* (pp. 23-34).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aertner, S. L., & Dovidio, J. F. (1986). The aversive form of racism. In J. F. Dovidio, Diego, CA: Academic and S. L. Gaertner(Eds.),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pp.61-89). San Press.
- Gaertner, S. L., Mann, J. A., Dovidio, J. F., Murrell, A. J., & Pomare, M. (1990). How does cooperation reduce intergroup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692-704.
- Gaertner, S. L., Mann, J. A., Murrell, A., & Dovidio, J. F. (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39-249.
- Gonzalez, R., & Brown, R. (2006). Dual identities in intergroup contact: Group status and size moderate the generalization of positive attitude chang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753-767.
- Guimond, S., Chatard, A., Martinot, D., Crisp, R. J., Redersdorf, S. (2006). Social comparison, self-stereotyping and gender differences in self-constr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221-242.
- Haddock, G., Zanna, M. P. & Esses, V. M.(1993). Assessing the structure of prejudicial attitudes: The case of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105-1118.
- Haddock, G., Zanna, M. P., & Esses, V. M. (1994). Mood and the expression of intergroup attitudes: The moderating role of affect intens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189-205.
- Hewstone, M. (1996). Contact and categorization: Social psychological interventions to change intergroup relations. In N. Macrae, M. Hewstone, & C. Stangor (Eds.), *Foundations of stereotypes and stereotyping* (pp. 323-368). New York: Guilford Press.
- Hewstone, M., & Brown, R. (1986). Contact is not enough: An intergroup perspective on the contact hypothesis. In M. Hewstone & R. Brown (Eds.), *Contact and conflict in intergroup encounters* (pp.3-44). Oxford: Blackwell.
- Hogg, M. A., & Abrams, D. (1988). *Social identifications*. New York: Routledge, Chapman & Hall.
- Hornsey, M., & Hogg, M. A.(2000). Assimilation and Diversity: An Integrative Model of Subgroup Rel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2), 143-156.
- Hwang, J .H, Kim, D. J., Kim, H. S. (2009). The effect of a persuasive message endorsing the multiculturalism or assimilationism ideologies on explicit and implicit attitude toward the Southeast Asian immigrants in Korea, *Asian Association of Social Psychology*.
- Jost, J. T., & Banaji, M. R. (1994). The role of stereotyping in system-justification and the production of false consciousnes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 1-27.
- Jussim, L., Nelson, T. E., Manis, M., & Soffin, S. (1995). Prejudice, stereotypes, and labelling effects: Sources of bias in person percep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228-246.
- Katz, I., & Hass, R. G. (1988). Racial ambivalence and value conflict: Correlational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Leary, M. R. (2007). Motivational and Emotional Aspects of the self,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17-344.
- Mackie, D. M., Devos, T., & Smith, E. R. (2000).

- Intergroup emotions : Explaining offensive action tendencies in an intergroup contex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602-616.
- Maior, G. R., & Olson, J. M. (1995). Relations between values,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s: The moderating role of attitude func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1, 266-285.
- Markus, H.,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Oakes, P. J., Haslam, S. A., Turner, J. C. (1994). *Stereotyping and social reality*. Oxford and Cambridge, MA: Basil Blackwell.
- Pettigrew, T. F., Tropp L. R.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 751-783
- Pettigrew, T. F., Christ, O., Wagner, U., & Stellmacher, J. (2007). Direct and indirect intergroup contact effects on prejudice: A normative interpre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 411-425.
- Rothbart, M., & John, O.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behavioral episodes: A cogni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group contact. *Journal of Social Issues*, 41(3), 81-104.
- Schwartz, S. H. (1992). Universals in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values: Theoretical advances and empirical tests in 20 countri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5, 1-65.
- Schwartzwald, S., Amir, Y. (1984). *School desegregation: Cross-cultural perspectives*, Academic Press New York.
- Sherif, M., Harvey, O. J., White, B. J., & Hood, W. R. (1961).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The Robbers Cave experiment. *Classics in the History of Psychology*.
- Spears, R., Jetten, J., & Doosje, B. (2001). The (il)legitimacy of ingroup bias: from social reality to social resistance. In J. T. Jost, & B. Major (Eds.), *The psychology of legitimacy: Emerging perspectives on ideology, justice, and intergroup relations* (pp. 332 - 36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angor, C., Sullivan, L. A., & Ford, T. E. (1991). Affective and cognitive determinants of prejudice. *Social Cognition*, 9, 59-80.
- Stephan, W. G., Ageyev, V., Coates-Shrider, L., Stephan, C. W., & Abalagina, M. (1994).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ereotypes and prejudice: An international stud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277-284.
- Tajfel, H. (1982).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39.
- Tajfel, H., & Turner, J. C. (1979). An integrative theory of intergroup conflict. In W. Austin & Worchel(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33-48).Pacific Grove, CA: Brooks/Cole.
- Tajfel, H., & Turner, J. C. (1986).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S. Worchel & W. Austin(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7-24). Chicago: Nelson-Hall.
- Taush, N., Hewstone, M., Kenworthy, J., Cairns, E., & Christ, O.(2007). Cross-Community Contact, Perceived Status Differences, and Intergroup Attitudes in Northern Ireland: The Mediating Roles of Individual-level versus Group-level Threats and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Identification. *Political Psychology*, 28, 53-68.
- Taylor, D. M., Wright, S. C., Moghaddam, F. M., & Lalonde, R. N. (1990). The personal/group discrimination discrepancy : Perceiving my group, but not myself, to be a target for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Bulletin*, 16, 254-262.
- Troopp, L. R., & Pettigrew, T. F. (2005). Differential Relationships Between Intergroup Contact and Affective and Cognitive Dimensions of Prejudi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8), 1145-1158.
- Turner, R. N., Hewstone, M., Voci, A., & Vonofakou, C. (2008). A test of the extended intergroup contact hypothesis: the mediating role of intergroup anxiety, perceived ingroup and outgroup norms, and inclusion of the outgroup i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95(4): 843-60.
- Turner, J. C., & Brown, R. (1978). Social status, cognitive alternatives and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pp.235-250). London : Academic Press.
- Turner, J. C., & Oakes, P. J. (1989). Self and collective: Cognition and social contex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 Verkuyten, M. (2005). Ethnic group identification and group evaluation among minority and majority groups: Testing the multicultural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 121-138.
- Verkuyten, M. (2010). Assimilation ideology and situational well-being among ethnic minority memb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269-275.
- Wright, S. C, Aron, A., McLaughlin-Volpe., & Ropp, S. A. (1997). The extended contact effect: Knowledge of cross-group friendship and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73-90.
- Wright, S. C., Taylor, D. M., & Moghaddam, F. M. (1990). Responding to Membership in a Disadvantaged Group: From Acceptance to Collective Pro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6), 994-1003.

Psychological Adaptation of Koreans in the Multicultural Era: The Effects of Social Identity, Acculturation-related Ideologies, and Intergroup Contact on Prejudice Against Migrants in Korea

Hai-Sook Kim Do-Yeong Kim Heecheon Shin Jouyeon Yi
Ajou University

This survey research investigated whether Koreans' attitudes toward migrants were affected by group identity, acculturation-related ideologies, threat, and intergroup contact. More specifically, we compared Koreans' attitudes toward five different migrant groups (i.e., migrant workers, marriage migrant wome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North Korean defectors and ethnic Koreans in China) to those toward Koreans (i.e., ingroup). We also explored whether prejudice toward migrants was affected by the in-group identification as Koreans, multiculturalism or assimilation ideologies, and the degree of contact with the migrants. To explore these issues, we conducted a nation-wide survey using the stratified sampling method, in which 1,000 Korean adults and 800 adolescents participated and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items asking about their attitudes (i.e., feeling thermometer, social distance, ideology, identification)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s expected,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Koreans exhibited strong in-group favoritism: they evaluated their in-group more favorably than the migrant groups on the feeling thermometer scale, and the in-group favoritism of adolescents was stronger than that of adults.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in line with the social identity theory, high in-group identifiers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migrant groups than low in-group identifiers, especially when the participants perceived high identity (i.e., symbolic) threat.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on the social distance measures (i.e., ingroup-outgroup) demonstrated that the more Koreans endorsed assimilation ideology, the more the number of out-group acquaintances and the more they perceived realistic threats, the more negative their attitudes toward migrants became. On the other hand, endorsing multiculturalism ideology and contacting the migrants more frequently was associated with more positive out-group attitudes. Finally, intergroup anxiety as well as identity threat or realistic threat, respectively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contact frequency(or the endorsement of assimilation ideology or value of authoritarianism) on attitudes toward migrants. We discuss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keywords: attitudes towards migrants in Korea, social identity, multiculturalism, assimilation ideology, contact

1차원고 접수일 : 2011년 03월 17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11년 05월 16일
게재 확정일 : 2011년 05월 17일